금주의 기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9월 30일 (토) 제 165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난민 포용"으로 루터 정신 기린다!

CT, 종교개혁 500주년...사랑과 관용으로 난민 보듬는 독일교회 사역 보도

유럽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난민들'에게 종착지는 독일이다. 끊임없이 난민이 유입되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이들을 돕고 있다. 독일은 현재 유럽 최대의 난민 수용 국가다. 물론 정부의 주도로만 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포용의 토양은 '시민사회'에 있고, '디아코니' 즉 독일어로 봉사와 헌신을 뜻하는 독일개신교협의회의 섬김이 밑바탕이 된다. 최근 독일복음주의회(EKD)는 디아코니를 통해 난민 사역을 펼치는데, 무려 3600만 유로(약 4200만 달러)를 투입했을 정도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는 독일교회가 이처럼 난민 포용과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이며, 루터의 유산을 계승하는 사역이라고 보도한다(Germans Are Welcoming Refugees as a Way to Honor Luther's Legacy: Asylum seekers and immigrants are big part of the Reformation's 500th anniversary in Germany).

다시 말해서, 독일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난민을 포용하는 사역으로 실제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루터 역시 교황청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정치적 난민이었고,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교회가 물론 이론적, 학술적 차원에서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난민 포용이라는 실제적 또는 실천적 자세로 루터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가 주축이 된 독일정부가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은 후로 루터는 로만캐톨릭의 추적을 받는 공공의 적이자 '도망자' 신세였다.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법외자(法外者)'로 낙인찍힌 그를 구해준 것은 프리드리히 제후였다. 보름스에서 비텐베르크로 가면서 도중의 마을마다 들러 설교하던 루터를 납치하는 형식으로 이 성에 데려왔다. 해발 400m 높이 깎아지른 벼랑 위에 지어진 성은 천혜의 요새. 성문을 닫으면 세상과 단절되는 이곳은 '루터의 밧모섬'이었다. 사도 요한이 에게해의 작은 섬 파트모스(밧모)의 산꼭대기 동굴에서 계시록을 쓴 것에 빗대 붙은 별칭이다. 루터는 이 성에서 정수리를 동그랗게 미는 수도자의 헤어스타일을 버렸고 수도복을 벗고 수염을 길렀다.

500년이 지난 지금, 루터가 난민이자 도망자로서 종교개혁을 불씨를 피워나갔던 것처럼 수많은 독일인들은 루터를 본받아 난민을 포용하면서, 독일 정부가 루터가 보여준 사례들을 따라 난민들을 수용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단순히 루터가 도망자 신세였던 점에서만 난민 포용의 원리를 발견하지는 않는다. 루터가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허용되며, 누구나 믿음을 통해 은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터는 "하나님은 공로나 선행을 바라시지 않는다"라고, 당시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을 전격적으로 거부했다. 즉 수도원에서 경건하고 금욕적인 고행을 하는 것과 일상적인 삶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다.

이처럼 독일인들은 루터를 재발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2015년부터 무려 150만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터키 정부의 난민 제한 정책으로 국경 출입국을 강화하고 나서부터는, 유입되는 난민들이 20만 명 정도로 감소됐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많은 독일인들은 루터의 비전을 난민들에게 안전한 도피처이자 정착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 독일 국회 채플린이자, EU에서 독일 복음주의교회(EKD) 대사로 활동한 파이겔(H. C. Volker Faigle)은 마태복음 25장이 루터의 이상을 실천하며, 독일 내에서 번지고 있는 이민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본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35절)"라는 말씀을 독일 크리스천들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문제에 대한 루터의 적용과 계승은 정치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국회 과반수이상이 기독교적 가치 안에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고수하는 독일 정부는 심지어 올해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에 자금을 지원했을 정도로 루터의 유산은 살아 있다.

〈3면으로 계속〉

찬양리더는 목회자와 충분한 교감 가져야 한다!

처치리더스.컴, 서밋교회 담임 J. D. 그리어 목사의 찬양 인도자에 대한 14가지 조언 소개

그리어(J D. Greear)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롤리-더럼 "서밋 교회(www.summitrdu.com)"에서 목회하고 있다. 2016년 "아웃리치 매거진(Outreach Magazine)"에서 미국 교회 가운데 가장 급성장한 곳으로 꼽힌 서밋은, 지난 8년간 교인 수가 4백 명에서 5천 명으로 늘었다. 서밋은 세계적으로 교회 개척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지난 40년 간 1천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A SENDING CHURCH: THE SUMMIT CHURCH).

교회 성장에는 찬양과 경배가 한 몫을 차지한다고 밝히는 그리어 목사는 담담하게 찬양 인도자에게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준다(What Every Pastor Wishes His Worship Leader Knew).

예배에 반응하는 법 가르치고 분위기를 읽어라
예술적 재능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사람 이끌어
설교하지 말고 시간 지켜야...설교 뒤 노래 통해 복음 강조

몇 주 전에 인도자 한 명이 몇몇 예비 찬양 인도자를 위한 강연을 요청하며, "찬양 인도자에게 목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해 달라고 했다. 내심 길어봤자 서너 가지겠지 생각하며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건 약간 순진한 생각이었다. 글을 다 쓰고 보니 14가지나 됐다.

"목회자가 찬양 인도자에게 원하는 것"에 상응하는 항목들을 보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은 예비 찬양 인도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해보겠다.

1. 사람들에게 예배에 반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인들에게 너무 차갑다고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인도자로서, 이런 잘못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출구 방법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인도자의 출구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다.

예배에 알맞게 반응하는 법은 가르쳐야 한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배의 자세를 "명령하고" 있다. 찬양 인도자로서의 임무는 찬양 인도자 주위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는 것을 포함해, 성경이 추천한 예배의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시편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손을 들거나(시 28:2, 63:4, 88:9, 134:6, 143:6 등) 외치는 것(시20:5, 22:22, 35:27, 47:1, 66:1, 81:1 등)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백인이 대다수인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 바로 연상되는 이미지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는 위대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몸을 쓰고 목소리를 내라고 해야 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 임무가 떨어진 곳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도움이 된다. 스텝과 인도자를 가르치고, 동일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2. 자세가 마음을 이끈다.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시 론
김풍운 목사

7면
종교개혁 500주년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6면
종교개혁 500주년...미국교회 "순전한 신앙고백문" 천명

시 론

허리케인이 주는 교훈

김풍운 목사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휴스턴을 강타한 하비(Harvey), 플로리다를 치고 지나간 어마(Irma) 등 대서양에서 일어나는 태풍인 허리케인이 줄을 지어 지나가는 계절이다. 그래서 필자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허리케인에 대하여 묵상하고 허리케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싶다.

첫째,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른다. 바울 일행을 태우고 떠난 알렉산드리아호는 처음엔 순한 남풍을 만나 평안하였지만 얼마 못가서 '유라굴로'(northeaster)라는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기상상태를 미리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지 않다. 태풍의 시기와 강도와 방향에 대하여 예측이 어긋나기도 한다. 하비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예보로 플로리다를 긴장시켰던 어마는 예상만큼 강하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다. 특별히 인생에게 임하는 크고 작은 허리케인의 시기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20대에도 암으로 죽을 수 있다. 1997년에 한국국민들은 외환위기(IMF)가 그렇게 올 줄 몰랐다. 2001년 9월 11일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은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범들에 의해 폭파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건물로 출근한 사람들, 그 곳에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을 잃어버린 가족들 모두 몰랐다. 사는 동안 어떤 모양의 허리케인이라도 우리 모두 없기를 바라지만 허리케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둘째, 그 허리케인이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은 힘 있는 백부장도 돈 있는 선주도 경험 있는 선장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바울도 덮쳤다. 하비가 덮친 휴스턴지역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다. 그렇지만 허리케인은 교회에도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에도 덮쳤다. 인생에 불어 닥치는 허리케인의 모습이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올지도 모른다.

필자가 아는 모 집사님은 어느 날 아침 출근해보니 그 날부로 해고 당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 다섯 중에서 자기가 해고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슬퍼하였다. 9월 7일에 멕시코에 강진이 발생하여서 약 32명이 죽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그 지진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도 올수 있었는데 멕시코에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생긴 것이다. '타바스코'라는 주에서는 두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 중 한 어린이는 정전으로 산소호흡기가 멈추어서 죽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인생의 허리케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유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필자가 사는 벅스카운티(필라델피아 시외)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하여 자연재해가 적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비 허리케인이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을 강타한 즈음(8월 31일)에 필라델피아 시내에 있는 템플대학교 여학생(22세)이 바에서 만난 29세 된 남자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학생을 죽인 살인범과 이웃에 사는 나탈리라는 여성은 그가 여러 번 자기 아파트에 들어가자 하였는데 하마터면 자기가 죽을 뻔 하였다고 생각하니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템플대학에 딸을 보낸 부모들과 가족들이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다. 물리적인 허리케인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인생의 허리케인은 정말 어느 곳에 누구에게 올지 모른다.

셋째, 인간은 언제 누구에게 올지 모르는 허리케인을 감당할 힘이 없다. 허리케인 '유라굴로'를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바울도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중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야말로 죽을힘을 다해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9월 6일 현재의 통계에 의하면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로 인하여 185,000채의 집이 손실을 입었고 9,000채의 집이 완전히 망가졌으며 30,000명의 난민이 생기고 71명이 사망하였다. 그 뒤를 이은 어마(Irma)를 대피하기 위하여 플로리다 주민 5,500,000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하였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힘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돈으로도 휴스턴에 NASA(미항공우주국)에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허리케인을 어찌 할 수 없다.

모세는 인생은 티끌과 같고 아침에 돋아났다가 시드는 풀과 같다고 했다(시90).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다(약4:14). 지혜자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다(잠27:1). 생각해 볼수록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허리케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시95:6-7).

pwkim52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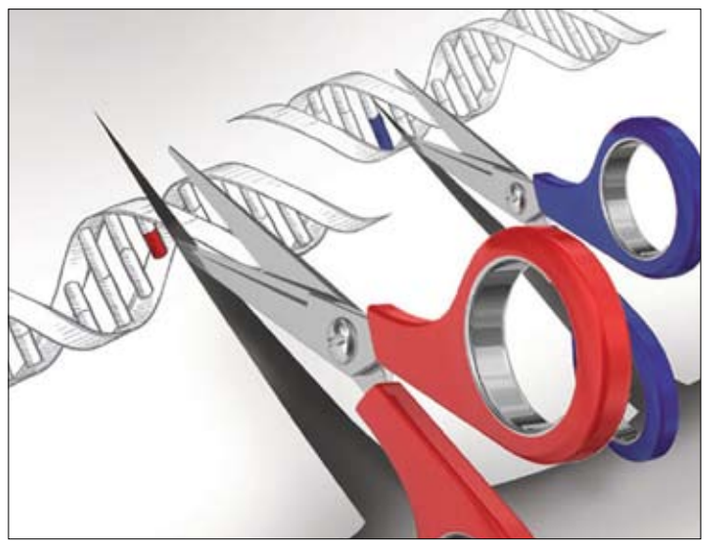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 신유전자편집기술(CRISPR) 성공으로 인한 낙관적 예측에 5가지 오해 소개

지난달 인간 배아에서 유전자 질환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유전자 편집기술(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로 치료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은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치료한 병은 심장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질환인 거대심근증으로, 500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흔한 유전자 질환이다. 지구촌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모든 새로운 기술은 오해와 과장을 불러일으키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는 CRISPR에 대한 오해 다섯 가지를 정리해준다(Five myths about gene editing: CRISPR's breakthrough made headlines. But are we ready to engineer designer babies?)

1. CRISPR은 맞춤형 아기를 만들 수 있다.

2016년 2월, 비영리 언론 '마더존스'는 "눈앞에 다가온 맞춤형 아기"라는 제목의 기사로 CRISPR 기술을 비판했다. 지난달 무신론자인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 역시 유전자 기반의 "맞춤형 아기"가 곧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키우려 노력하는 오늘날의 부모가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간 신체와 뇌는 유전자(본성)와 환경(양육)의 조합으로 결정
문제하나 해결하며 다른 문제 만들 수도...시술비도 매우 비싸

하지만 CRISPR이 이런 기술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아직 그 방법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나 시몬 바일스(2016년 하계 올림픽에서 네 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 여자 체조선수:편집자) 같은 극도의 유연성을 가진 아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는 이런 특성이 하나의 유전자를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체와 뇌는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 곧 본성과 양육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아름다움과 운동능력, 음악적 능력은 하나의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여러 유전자와 생활 습관, 환경 요인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자질"이다.

지능은 특히 그렇다. 쌍둥이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능의 약 50%만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다.

2. CRISPR은 유전적 문제를 가진 부모의 유일한 희망이다.

유전자 연구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학 해설 프로젝트(The Genetic Literacy Project)는 올해 "아이가 유전병을 가질까봐 걱정했던 부모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라고 썼다. 호주의 한 신문 역시 지난 달 CRISPR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사를 썼다.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거하는 과학이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다."

CRISPR이 분명 유전자의 오류를 제거하고 어떤 부모들에게 유전자 질환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전자 편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체외수정을 통한 수정란 중 건강한 배아를 선택하는 '착상전 유전자 검사 기술'은 이 분야에서 수십 년째 쓰이고 있다. 유전자 질환인 낭포성 섬유증을 해결하기위해 1991년 시작된 이 기술은 유전자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진 부모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물론 CRISPR은 체외수정 과정에서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배아를 가진 부모에게 다시 한 번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네이처'에 실린 연구논문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전자 질환 문제의 경우 체외수정을 통한 배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계속해서 표준적인 해결책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3. CRISPR은 곧 널리 퍼질 것이다.

"나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CRISPR이 유전자 질환을 치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이 중의 한 명인 제니퍼 두드나가 한 말이다. 시카고트리뷴 역시 2016년 4월, 논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썼다. "과학자들은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으며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1996년 정부 연구비로 인간 배아를 만들고 파괴하고 버리는 일을 금지한 인간배아 연구 금지령이 발효됐다. 최근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한 연구는 대학이나 재단의 금액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 자금 없이는 연구 속도는 그리 빠르지 못할 것이다.

특히, 하나의 실험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 실험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의 경우 비록 다수의 태아가 유전자 치료에 성공했지만 실패한 비율도 1/4 이상이다.

CRISPR에 대한 다른 우려는 이 기술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서 의도치 않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로 CRISPR이 어떤 세포에서는 작동하지만 다른 세포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오발(off-target)"이나 "모자이크 현상"이다. 이 기술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4. CRISPR은 유전자 질환 없는 미래를 약속한다.

"CRISPR의 인기는 특정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인간에게서 유전질환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 바이스(Vice)는 이렇게 썼다. 최근 와이어드(Wired)는 이렇게 말했다. "CRISPR은 언젠가 모든 유전자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척 듣기 좋은 말이지만 사실 모든 유전자 질환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 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난민 포용" 으로 루터 정신 기린다!

〈1면에서 계속〉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처럼 생생하게 독일인들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미디어들의 역할도 한 몫을 단단히 한다. 오늘의 독일을 이끌게 된 루터의 활약과 사상들이 매일 업데이트되며 보도되기 때문이다.

베를린 AP 특파원인 라이징(D Rising)은 독일 내 반이민 정서가 2015년 전후로 분명하게 갈라졌다고 본다. 2015년 극에 달했던 긴장과 갈등이 2015년 이후, 갑자기 수그러들어, 극우정당(AFD)의 반이민 정책 지지율이 10%의 지지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독일공익TV방송(ZDF)나 타 미디어들은 독일로 유입된 난민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한 독일인들의 준비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일제히 보도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교회들이 난민들에게 임시 쉼터로서 제공돼 단지 의식주만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하게 된 것이다.

결론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르침을 독일 국민들은 난민 포용과 정착이라는 실제적인 사역으로 실천하고 있다.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국경을 폐쇄하는 등 난민 통제를 위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반면, 독일은 2015년 이후 약 150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독일 정부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독일로 찾아온 이들을 위해 관용의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해 수용 시설을 세우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난민들이 빠르게 독일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직업 박람회를 열고 있다.

메르켈 총리(기독민주연합)는, 루터는 "구원은 면죄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값비싼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온다"고 강조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결국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교회는 예수와 마틴 루터의 가르침에 따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난민들을 포용했다. 난민 범죄와 테러 증가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교회는 사랑과 관용의 자세를 선택했다.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 결과, 무슬림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독일 사회와 교회 모두가 루터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길 기대해보는 것도, 어쩌면 500년 전 루터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2면에서 계속〉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유전자 질환이 유전자 하나의 문제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질환 중 약 10,000개는 특정한 하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유전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수천 개의 유전자 질환이 있다. 특히 어떤 유전자 질환은 새로운 "신생(de novo)"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암이 좋은 예다. 어떤 암은 유전에 의한 것이지만, 유전이 아닌 다른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외부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암이 있다. 유전자 질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중요한 목표지만 단순히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택을 볼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다.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진보는 이 과정의 비용을 낮추었고 어떤 이는 이를 대중적 CRISPR이 등장할 전조로 보고 있다. 2015년 한 신문은 "저렴하고 쉬워진 유전자 편집"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추어가 CRISPR 기술을 이용해 "가내 유전자 편집"을 "싸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CRISPR은 분명 예전보다는 저렴해졌을 것이지만, 여전히 가까운 미래에 모든 부모가 이 기술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유전자 기술은 매우 값비싼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 비용에는 소모품 외에도 의사의 시간, 노동, 그리고 장비의 유지비도 포함되며, 종종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출산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고 싶다면 체외수정의 비용을 보면 된다. 오늘날 미국에서 한 번의 체외수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7,500달러정도다. 보험회사가 CRISPR에 돈을 지불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체외수정을 포함하는 보험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CRISPR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결국 CRISPR이 안전한 배아 유전자 편집기술로 자리 잡고 나면 이 기술은 부유한 이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전자 질환을 빈곤의 질병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날 극심한 빈부격차를 볼 때, 스탯뉴스의 짐 코즈벡이 "CRISPR은 이 기술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부유한 이들에게만 유용할 것이다"라며 보인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미래는 아니라는 뜻이다.

5. CRISPR은 언젠가 누구나 혜

찬양리더는 목회자와 충분한 교감 가져야 한다!

〈1면에서 계속〉

지성, 감성, 신체가 모두 서로 조화를 이루며 일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소통의 70%에서 95%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 한 마디 하지 않고도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상당히 전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릎 꿇고 일어서고 노래하고 외치고 손을 들라고 명하고 있다. 성경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기분이 내키면 하나님께 외쳐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외쳐라"라고 한다. 우리의 마음이 종종 예배에서 우리의 자세를 이끌지만 이와 같이 자세도 우리 마음을 이끈다.

이런 말을 할 때 듣는 말은 진심도 아닌데 이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에 다가가는 데 좋은 방법은 아니다. "마음이 간통을 원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충실한 것은 위선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순종이란 감정에 따라 오르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죄에 대한 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3. 사람들은 공연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대충 설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노래를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다. 찬양 인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노래하라고 있는 자리도 아니다. 설교 뒤로 숨어선 안 된다. 나와서 사람들과 섞여야 한다.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찬양 인도자로서 그저 같은 공간에서 찬양 인도자처럼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야 한다.

4. 원하는 바를 목회자와 상의해야 한다.

특정한 노래를 하고 싶거나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목회자와 상의하면 함께 실질적인 목표에 다다르기 쉽다. 예배는 계시와 응답의 리듬이 돼야 한다. 목회자와 뜻이 같으면 특정한 노래와 무대를 꾸리기가 더 쉬워진다.

5. 청중의 기분을 고려한다고 해서 변칙적인 것이 아니다.

찬양 인도자는 공연자가 아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 그렇다고 너무 "신학적"이어서 찬양인도의 예술적인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음악과 노래를 다뤄, 특정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다. 느리고 부드러운 곡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뜬다고 놀랄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다. 단지 기분에 따르는 것이다.

예화로 설교를 시작하듯이, 예배를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묵상과 어울리고 구슬픈 곡이 아니라 빠른 곡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런 식만 고수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무시해서도 안 된다. 분위기를 만들고 예술적인 부분을 사용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한다.

6. 사람들이 당황할 수 있는 것을 피해서 말해야 한다.

모든 찬양 인도자가 공적으로 말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현명해질 필요는 있다. 락음악 공연무대에서 더 어울리는 "여러분, 안 들려요"나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와 같은 말을 한다면, 말하고 싶은 것을 정확히 쓰는 게 낫다. 무엇보다도 노래가사가 써져 있으니까, 일정한 형식을 따르도록 가사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니다.

7. 계획한 대로만 하지 말고, 분위기를 읽어야 한다.

예배 무대는 설교와 똑같다. 무대를 계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예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곡이 어울리지 않네. 계획한 대로 승리에 젖은 듯 빠르게 하지 말고, 속도를 늦춰서 사람들에게 여유를 갖게 해야겠다." 너무 이렇게만 한다면 주위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지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

분명히 느껴지는 바를 설명할 때, 현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깊이 교감해야 한다. 종종 찬양 인도자가 시작할 때 노래하고, 빠지고, 뒤에 한두 곡을 하며 돌아온다. 찬양 인도자가 예배 대부분에 제외돼있을 때만큼 나쁜 것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끝부분에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앞부분과 잘 이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양 인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8. 설교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

찬양 인도자에게 일반적으로 드는 유혹은 설교를 뒷받침하도록 노래하기 전에 몇 마디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 마라.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안다면,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설교는 사람들이 예배를 떠나면서 끝나는 것이다. 찬양 인도자가 할 일은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등 떠밀어주는 것이다. 그런 건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하고, 음악에 열중하면 된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도 하지 말고 설교에 관한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예배 인도자가 "설교"를 짧게 한 마디 하면 좋을 때가 있다. 하지만 설교 후에 바로 짧은 말로 또 설교하면 사람들이 소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

9. 설교 시간을 지켜주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모순이 되는 부분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목회자에게 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돼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말로 예배해왔고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교회에 왔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노래와 설교를 적절히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예배의 요소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10. 모두가 음악에 이끌리지는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만의 노래를 많이 부른다. 그럴 때 멋지다고 생각하고, 더 그랬으면 좋겠다. 찬양 인도자가 자신의 작품에 손을 대어, 성도에게 복음성가를 문맥에 맞춰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과도해지면 우리만의 기분으로 빠지기 쉽다.

교회에서는 현대음악과 찬송가의 균형이 필요하다. 너무 주관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명은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스로를 다소 가볍게 생각하기도 해야 한다.

11. 예술가가 아니라 성도를 이끌어야 한다.

찬양 인도자로서 가진 소명과 독특한 능력 중에는 성도를 이끌고 북돋우는 것도 포함돼 있다. 사용하는 음악의 형식과 방식도 포함한다. 그러나 찬양 인도자는 보통의 성도보다 예술가들로 둘러싸여 지낼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만 손을 대야지"한 것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극적이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의 창의적인 영혼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게 싫겠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이것이 리더십과 비전이 일하는 방식이다. 음악도 이와 똑같이 일한다. 음악이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을 찌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정말 노래를 받아들이고 정말 좋아할 때, 찬양 인도자는 이런 노래에 싫증날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계속 같은 것을 끈질기게 고수하고 너무 빠르게 바꾸지 말아야 한다.

12. 긍정해야 한다.

단점을 인정하고 강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역할을 위해 아마도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다.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넘기는 게 훈련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내는 내 설교에 가장 열렬한 팬이다. 내가 항상 잘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일부로 내 설교를 비판해 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아내는 사람들이 비판하도록 하고 단지 "긍정적인 부분을 주목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목회자에 대해 비슷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목회자가 우리와 열렬한 팬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의 목록을 길게 늘어놓는다면, 누구나 성공까지 도달하게 할 수 없다.

13. 주제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펼치지만 목표는 모든 것을 총괄해야 쉽게 이룬다. 예배의 주제와 여러 과정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예배 자체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

14. 설교에 대해 목회자에게 항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

예배 준비를 위해 많은 찬양 인도자는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는 분명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자주 찬양 인도자에게 얘기하듯, "성찬식으로 마치지 않는 설교는 나쁜 것이다." 찰스 스펄전은 목회자에게 늘 모든 설교 끝에 복음으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했다. 나도 이와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복음은 말씀이 명한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는 복음으로 끝나야 한다. 문제는 모든 설교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찬양 인도자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복음과 분명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설교 뒤에 오는 노래를 통해 능력의 근원인 복음을 강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다. 여러분이 더 붙일 것이 있는가? "찬양 인도자가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을 쓸 용기를 가진 찬양 인도자는 없는가?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임직 받으시는 분들

안수집사 임직 김길훈 이관영 차영규
안수집사 취임 김성욱
권 사 임 직 강규현 김강주 김마리 남은희 박 영 송은경 유덕희 이에라카 이윤선 전옥희

○ 일시 2017년 10월 8일(주일) 오전 11시
○ 장소 토랜스 선한목자교회 본당 (담임 김현수 목사)

토랜스 선한목자교회
Torrance Good Shepherd Church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el : 310-326-2001 / 310-989-4381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씨앗!

부모님이 이민을 결정하셨을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는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출국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도착 후, 그 동경심이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인종차별의 서러움, 동방예의지국인 '코리아'도 모르고 손가락으로 눈꼬리를 잡아당기면서 '찢어진 눈'의 '차이니스', '자패니스'라고 놀리는 아이들...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서러웠지만, 영어를 못하니 그냥 당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면 가끔 한국말과 스패니시로 욕하며 화풀이를 했지만, 아들 삼형제를 위해 이민 오셔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었습니다.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온 저, 그리고 물이 다르고 풍습이 다른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흩어진'(dia)과 '씨앗'(spora)의 합성어로 낯선 외국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81개국에 750만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씨앗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수는 약 130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약 100여 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수라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된 배경은 대부분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일제의 박해와 가난을 피해 중국 만주와 연변 등으로 이주한 조선족,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강제로 이주 당한 고려인들(카레이스키),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재일동포들,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 부채 노예로 팔려온 한인들, 생존을 위해 쿠바와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간 한인 노동자들, 찌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이역만리까지 갔던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 최근까지도 많은 한인들이 해외 입양아, 주재원, 유학생, 가족 이민 등등... 여러 형태로 해외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남가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전 세계 181개국에 흩어진 750만 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미국에 왔던지,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곧 '교회'(church)라고 하신 주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씨앗인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미셔널 처치(missional church)로 사는 것,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컬(glocal)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 죄악으로 물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한민족 디아스포라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면 우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새롭게 되어 생명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리고 성령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인종차별과 같은 온갖 죄악의 줄을 끊고 영적으로 잠든 세상을 깨우는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흩어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계속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푸/른/초/장

노기송 목사
(뉴욕 새시대교회)

예수님의 꿈
(사도행전 1장 1절-8절)

제자들은 무척 흥분했습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믿지 못할 일이 자기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이나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내심 쾌재를 불렀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아 이분이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실 분이시다" 라고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몇 개 안 되는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걷고, 엄청 큰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지 않나, 특별히 죽은 지 나흘이 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시는 등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수없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으로 알고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열두 명 중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하여 열심을 내던 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아무 능력도 안보이시고 맥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엄청 실망과 허탈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습니다. 특히 수제자를 자청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 번씩이나 뻔뻔스럽게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저주를 섞으면서 말입니다.

그런 자기 선생님에 대한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자기들 눈앞에 다시 살아서 나타나셨으니, 심히 놀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엉뚱하게도 자기들의 꿈인 이스라엘 해방을 다시 꿈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고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에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그런 제자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계셨는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고는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로 구름타고 올라가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허망하게도 자기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허탈함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 때는 돌아가셨지만 죽은 시신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형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면서 기껏해야 일 년에 몇 번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뿐, 가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니 이들에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헷갈리고 더욱더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꿈은 완전히 깨진 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 인간들의 꿈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많은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자기 인간적인 꿈을 성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잘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 공생애 때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들도 죽을 때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고 가듯이, 우리 주님도 마지막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endment"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살다가 천당가는 것이 꿈이지만, 예수님은 그 차원을 벗어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알곡 신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나의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며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꿈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4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 부담을 갖습니다. 맨날 교회에 얽매여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 손해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닙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교회를 통하여 펼쳐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떠나 이상한 곳에서는 진정 예수님의 꿈을 꾸지도 못하고 펼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알고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시간에 열심히 나와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4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약속)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싶어 하시는 꿈인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꿈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통하여 배우고 세상에서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야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침례(세례)를 받아야 합니다(5절).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믿고 받아드릴 때, 성령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고전12:3).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성경말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지 못했던 제자들의 비겁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하여 잘 압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생활하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자기 꿈(욕심, 야망)은 이루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꿈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9면으로 계속〉

사랑한인교회 부교역자 청빙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의무와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 (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 외에 영어 소통의 원할 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 (중고등부) 전도사님 (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제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 (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서류 마감: 11/20/2017 까지
2. 제출처: 사랑한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2801 W . Temple St LA.CA.90026
   담임목사: 하 재식
3. Email: ikc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담임목사 하재식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기독교를 "증오 HATE" 단체라고 부르고 있는 세상단체들

기독교 단체가 성경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크리스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난 8년간 수많은 크리스천 기업들, 학생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 전체를 송두리 채 흔드는 치명적인 종교차별을 겪었건만,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단체들이 자유진보주의 사회가 만들어놓은 "증오" 목록에까지 올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에, 크리스천들이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 더욱 말씀위에 서서 무장해서 영적전쟁 기도를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Ruth Institute 라는 이 기관은 단순히(simply) 성경말씀을 기준삼아 운영하는 기독교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잘 알려진 Southern Poverty Law Center(SPLC)라는 단체가 지난 8월 중순에 룻기독교단체를 "Hate(증오) Group"이라고 사회목록에 분류하여 올렸습니다.

Ruth 단체가 "Hate(증오)" 목록에 올려진 이유는, Ruth 단체는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며 All Gender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결론적으로 자유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념들을 따르지 않는 단체라는 것이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을 거절당한 룻 단체

또한, 룻 단체는 그동안 온라인 기부 절차를 수년간 서비스해주고 있던 Vanco Payment Solutions로부터 이유 없이 갑자기 서비스 제공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Ruth Institute이 8월 31일에 받은 이메일에 따르면 Ruth Institute은 Vanco와 Wells Fargo의 정책에 위반되는 증오, 폭력, 괴롭힘 및 남용을 촉진하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돼있어서 관계를 중단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설립자며 회장인 Jennifer Roback Morse가 말하기를 SPLC는 기독교단체인 AFA와 ADF를 포함한 다른 잘 알려진 큰 기독교단체들까지도 다 "증오 조직"과 "동성애 증오 그룹"으로 목록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좌파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을 증오와 백인 우월주의단체들로 본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증오와 백인우월주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미국 안에서 잠잠케 하고 몰아내고자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임이 지금 밝혀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참고로, SPLC는 2013년에 벌써 Ruth Institute를 "증오 그룹"으로 목록에 올렸지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8월 17일 CNN 뉴스가 SPLC의 "증오 그룹"을 출판한 후부터입니다.

Southern Poverty Law Center(SPLC)는 과연 어떤 단체?

그렇다면 기독교단체를 이렇게도 함부로 차별하고 정죄하는 SPLC는 어떤 단체일까요?

이들은 본래 사회 설문조사를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돕는 기관으로 알려졌던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오바마 행정시절 때부터 자유진보 정치적으로 깊이 빠지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쫓아 주로 반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모든 자료들을 미디어에 내놓기 시작했고 주류 미디어, 뉴스(CNN, NBC, ABC,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뉴스 등등) 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왜곡된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룻 기독교단체가 "Hate 증오" 단체로 명칭이 붙은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

SPLC는 언제부터인지 자칭 국내 "증오 그룹 및 기타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감시해주는 단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공산국가에서나 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걸까요? 특별히 왜 기독교단체를 주시하며 감시하는 걸까요?

무슨 권리로 SPLC는 기독교단체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신들의 이념기준으로 맞추고 있는 걸까요? 오바마 시절에 기독교가 치관을 모욕하고 미국에서 없애버리려던 반기독교 정책들을 왜 SPLC는 아직도 따르고 있는 걸까요?

SPLC는 기독교, 보수주의자, 생명 존엄성 운동가, 성경적 결혼의 견해를 가진 모든 단체들을 '증오 목록, 백인우월주의자 목록, 사회를 무너뜨리는 극단주의자들 목록'에 올려놓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목록들을 주류미디어를 통해 알림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점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안길뿐 아니라 그야말로 미국 안에 큰 분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로 미국사회 속에서 국가를 분열시킬 만큼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숨겨있는 인물들은 그 목록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기독교를 증오하여 기독교인들만 차별하며 핍박하고, 그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오바마와 힐러리를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지지해주던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거침없이 자랑하는 조지 소로스(George Soros) 같은 사람들이나 그들과 연결된 단체들은 "Hate 증오" 목록이나 "인종차별" 목록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과 연결성은 다음기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조지 소로스는 억만장자 비즈니스맨으로 그동안 주류미디어가 "인종차별"로 인해 벌어진 폭동이라고 내보냈던 대형폭동의 대부분을 조종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곤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버스까지 대절해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잘 알려진 대형폭동들을 거짓 "인종차별"이라는 이름아래 여기저기서 벌리고, 힐러리가 대통령이 안됐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내리기 위해 사람들이 솔깃할 거짓 "백인우월주의, 폐시즘, 인종차별, KKK" 등등의 이름으로 여러 폭력을 행사하던 수많은 안티파들을 조종하고 있는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런 거목들이나 안티파(Anti)들, 실제로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동네 빌딩, 차,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해꼬지 했던 폭동자들은 "Hate 증오" 목록에 안올렸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실제적 조사는 하나도 없다는 황당스런 사실입니다.

미국은 성경에 기반하여 세워진 국가이며 아직도 미국의 헌법은 기독교의 신앙을 보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한 것이, 오바마로 인해 사라졌던 기독교 보호법안을 다시 강력하게 재건시킨 후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기독교단체를 SPLC처럼 무례하게 자기 마음대로 증오그룹, 백인우월주의로 취급해서도 안되고, 그 일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영적 전쟁이 정치적으로 파고 들어온 이상, 좌파 사상을 지원하며 좌파를 따르지 않으면 극단주의 증오 그룹과 백인우월주의로 낙인 찍혀지는 혼란한 세상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혼동되지 않고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ruthinstitute.org/ruth-speaks-out/southern-poverty-law-center-gets-creative-to-label-hate-groups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로마 천주교도들은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역설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판해야 하는지요?
-달라스에서 김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가 끝난 후에는 사단의 전략이 그러하듯이 교회의 혼란을 틈타서 이단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역교회 목사 또는 감독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 이용의 감독 이레니우(Irenaeus) 같은 이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감독 중심적인 교회의 하나 됨은 교권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키프리안(Cyprin 200-258)과 제롬(Jerome 342-420)은 이 감독은 다른 직분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급 구조적인 감독정치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주의는 사제주의 신학과 결합하면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교황정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0세기 이후 교황들은 신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까지 관여하면서 왕 같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교황정치는 베드로의 우위사상과 교황의 베드로 승계사상에 기초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고 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마16:18)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라는 인물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너는 내 양을 치라"(요 21:15)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양육권을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로마 천주교회의 해석은 성경전후 문맥과 헬라어의 용법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성(性)과 수(數)와 격(格)의 구별이 확실한 언어입니다. 여기 쓰안 단어의 성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을 부르실 때는 베드로(Petros)라고 하셨지만 그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반석(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카톨릭은 베드로를 반석과 같은 동격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즉 바요나 시몬에게 적용된 베드로는 헬라어로 남성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반석(페트라)는 여성명사입니다. 어원상으로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는 엄연히 다른데 동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신앙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방교부였던 크리스스톰(John Chrysostom)도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이라고 하였고 서방교회 대표적인 교부인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석은 곧 예수그리스도라고 하였고 시릴과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예수그리스도"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벧전 2:6-8에서 교회가 자신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기초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을 시온에 두나니…"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며 건축자의 버린 돌인 그리스도 예수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낭설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jik Lee(이관직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비마(Bimanese)

비마인들은 인도네시아 섬들의 원주민이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의 바로 남쪽의 인도양에 위치해 있다.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300개 이상의 각기 다른 다양한 인종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들 그룹 중 대부분은 비마를 포함해 무슬림이다.

비마인들은 숨바와 섬에 살고 있다. 섬의 동쪽 부분이 "비마"라고 불리는 반면 "숨바와"라는 이름은 원래 섬의 서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섬 전체가 숨바와라고 알려져 있다.

비마인들은 섬의 계곡에 살고 있으며 근처 롬보크 섬에 사는 사사크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비마라고 불리는 그들의 언어는 말레이-폴리네시아 어족이다. 지역 전통에 따르면 비마는 힌두교의 영향을 나타내는 이름의 52수뇌 왕자(ruling princes)가 있었다고 한다.

삶의 모습

긴 해안선에도 불구하고 비마인 마을들은 보통 해안에서 적어도 4마일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섬의 대부분이 넓은 들판으로 덮여 있고, 논은 북쪽 강 연안과 중앙에 있는 강 골짜기를 따라 일년내내 경작되고 있다. 기후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열대성이며 뚜렷한 건기와 우기가 있다.

비마인들의 생활습관은 건기와 우기 쌀농사, 그리고 과일과 채소 경작을 하는 시기에 맞춰져 있다. 쌀이 주요 작물이고, 두 번째 작물은 양파, 콩, 약간의 담배와 커피가 있다. 농업 뿐 아니라 숨바와는 견과류, 등(종려과) 그리고 밀랍 같은 산림작물이 풍부하다.

14세기 이후로 숨바와는 작고 힘센 말들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말들은 근처 자바섬에 수출되었다. 1920년대 비마는 다시 한 번 중요한 말 생산지로 알려졌다.

하나의 비마인 마을은 종종 더 작은 촌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년중 일부는 공동농장이 있는 산에 가서 살고, 추수 후에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온다.

만약 젊은 남자가 청혼을 하고자 하면 젊은 여자에게 말 잘하는 여자 "중매자"를 보낸다. 그 여자는 그 때 공식적인 용어로 청혼을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신랑은 여자의 부모에게 "신부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 가격은 신부의 사회적 위치에 달려 있다. 일단 결혼하면 젊은 부부는 즉시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세워야 한다.

비마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역 단체는 촌락이다. 각 촌락은 '모스크'라고 불리는 각자의 무슬림 사원이 있다. 모스크의 우두머리는 모든 종교행사와 연간 축제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신앙

숨바와(비마)의 38째 지배자가 1640년대에 이슬람에 개종했고 오늘날 비마는 99.9%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아직도 각 지역의 원시적인 애니미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비마인들의 문화에서 "무당"이나 "주술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까지 사회에 수많은 무당들이 남아 있다. 이슬람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많은 비마인들도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전히 무당의 도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비마인들 중에 신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소수이다. 불행히도 그들은 교회성장이나 전도에 필요한 자료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단지 한 선교단체만이 최근에 비마인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비마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 없고 성경도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다. 비마인들은 이슬람과 애니미즘에 묶여 영적 어두움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누가 기꺼이 가서 비마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려는가?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로힝야족 사태에 미지근한 WCC 성명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 16일 세계교회협의회(WCC)가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 일부다. 최근 들어 미얀마군이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국제 기독교 기구들의 복잡한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WCC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로힝야족은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폭력과 파괴를 종식시켜야 하고 누구라도 국적과 종교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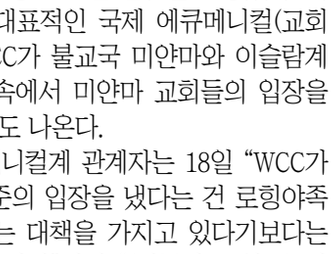
지난달 말 미얀마군과 로힝야족 간 유혈사태가 고조되기 시작한 이후 20여일 만에 처음 나온 성명서라고 보기엔 미흡하다는 평이 많다. 특히 WCC는 2013년 부산에서 열린 10차 총회 선언서 등을 통해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며 로힝야족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언급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국제 에큐메니컬(교회일치연합) 기구인 WCC가 불교국 미얀마와 이슬람계인 로힝야족의 대치 속에서 미얀마 교회들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에큐메니컬계 관계자는 18일 "WCC가 고작 '우려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냈다는 건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 책임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면피하려는 느낌이 강하다"면서 "(침묵하고 있는) 아웅 산 수지 여사를 향해 일침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빠져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WCC가 수지 여사와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수위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WCC의 성명서에는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수지 여사가 이번 사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류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쏙 빠져 있다.

다음 달 미얀마에서 아시아선교대회를 열기로 하고 수지 여사를 초청한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로힝야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수지 여사의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워졌기 때문. 게다가 미얀마 정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피하려는 미얀마교회 관계자들이 CCA에 아시아선교대회에서 로힝야족 사태를 다루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CCA 총무를 지낸 안재웅 다솜이재단 이사장은 "미얀마 교회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건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학살이 벌어지는 미얀마에서 아시아선교대회가 열리는 만큼 CCA가 이에 대한 지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동 1000만명 '현대판 노예'



전 세계에서 4000만명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처해 있으며 25%인 1000만명은 어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가 1억5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워크프리재단(WFF)은 19일 '2017 세계 현대판 노예 현황'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맞춰 발표했다. 현대판 노예는 협박과 폭력, 속임수 등으로 인해 강제노동과 강요된 결혼, 인신매매 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4000만명 가운데 71%인 2900만명은 여성과 소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여성의 99%는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거나 강제 결혼 희생자들이다. 특히 강제 결혼한 여성 중 37%는 어린이였다. 현대판 노예 비율이 높은 대륙은 아프리카로 1000명 중 7.6명이나 됐다.

보고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8개국 이상에서 이뤄진 인터뷰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편 ILO가 단독 발간한 보고서 '2017 세계 어린이 노동 현황'에 따르면 전 세계 5-17세 어린이 1억5200만명이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7300만명은 건강과 안전 등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독립 투표 강행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가 이라크 정부와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5일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대상자는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도 2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투표하는 길로 간다"면서 "독립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자니 수반은 이어 "우리는 과거 바그다드(이라크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에서 실패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주민투표 이후 긴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RG는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돼도 바로 분리독립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독립 주권국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의 통합과 평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KRG의 투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에 격렬하게 반대해 온 터키도 주민투표 강행에 인접 국경검문소 통행을 제한하는 등 즉각적인 제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 내 쿠르드계의 연쇄 독립 요구를 경계해 온 터키는 투표일에 맞춰 성명을 내고 "투표 결과는 무효"라며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 경제 제재 이외에도 군사 대응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의도까지 내비쳤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투표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등 8개국 국민 미 입국 전면 금지

미국이 북한 등 8개국 국민의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금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반(反)이민 행정명령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AP, AFP,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지 위한 행동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금지되는 국가는 북한,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베네수엘라 등 총 8개국이다. 이전 명령에 포함됐던 수단이 제외되고, 북한·베네수엘라·차드 3개국이 추가됐다.

특히 북한과 차드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선언문은 "북한은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숫자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을 미국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29일 무슬림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시켰다. 이번에 수정 발표된 여행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발효된다. 당국관계자들은 새로운 명령이 앞선 명령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국인 3명 중 2명 "미, 대북 선제공격 반대"

미국인 3명 중 2명꼴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인 4명 중 3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에 대한 지지는 3명 중 1명에 그쳤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지지율의 절반에 불과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24일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반응은 응답자의 37%에 그쳤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42%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매티스 장관 등 군 지휘부에 대한 신뢰는 72%로 높게 나타났다.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모인 매티스 장관의 지지율에 무려 35% 포인트 부족했다. 이는 매티스 장관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다른 외교안보팀과 함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한 지지는 일반적인 국정지지도(39%)보다 낮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57%로 나타났다.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응한 비율은 70%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 김정은이 책임있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반응은 8%에 불과했다.

미 "북한에 선전포고한 적 없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부를 겨냥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말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외무상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미국 전략폭격기를 격추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똑같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최대한의 경제·외교적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도 이 외무상 발언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은 당장 오늘밤에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악관과 국방부의 이런 입장은 북한의 '격추' 위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을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군사옵션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의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문당했다"는 트윗을 올렸다. 이날 폭스뉴스의 웜비어 부모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 올라온 트윗이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MSNBC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깡패라고 생각하지만, 그가 위협하는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자신의 주장을 떠들어대도록 계속 무대를 깔아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BBC, 한국어 서비스 개시

BBC 월드서비스가 25일 한국어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

이번에 출범한 'BBC 코리아'는 라디오와 온라인 웹사이트(BBC.com/Korean)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독자와 청취자에게 최신 뉴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BBC는 한국어 외에도 ▲오로모어 ▲암하라어 ▲구자라티어 ▲이그보어 ▲마라티어 ▲피진어 ▲편자브어 ▲세르비아어 ▲텔루구어 ▲티그리냐어 ▲요루바어 등 11개 언어를 추가했다. 1940년대 이후 가장 큰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에서는 시사, 스포츠, 경제, 문화 분야의 기사와 영상,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공유할 수 있다. 서울과 런던,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BBC 코리아 취재진의 보도와 BBC뉴스의 해외 특파원의 기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BBC 코리아는 매일 30분 분량의 라디오 방송도 단파와 중파로 송출한다. 방송 시간은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단파가 오후 3시30분, 중파가 오후 4시30분이다. 우리 시간으로 단파는 오후 11시30분부터 세시간 동안, 중파는 오전 12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매일 송출된다. 중파 주파수는 1431kHz, 단파 주파수는 10월 28일까지 5810kHz, 9940kHz를 사용한다.

멕시코, 12일 만에 다시 7.1 강진…최소 227명 사망

지난 7일 규모 8.1의 지진으로 최소 98명이 목숨을 잃은 멕시코에 12일 만에 또 다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사망자가 최소 227명으로 집계됐다. 지진 강도는 낮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한 탓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를 인용해 19일 오후 1시14분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동쪽으로 122㎞ 떨어진 푸에블라주 라보소 인근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일 새벽 현재 최소 96명이 사망한 멕시코시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이밖에 모렐로스주(71명)와 푸에블라주(43명)의 피해가 컸다. 아직 붕괴된 건물 속에 매몰자들이 많아 사망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지진 발생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교민 이모(41)씨가 무너진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멕시코시티 5층 건물에서 사무실을 임차해 원단 회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시티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공무원 호르헤 오르티즈 디아즈(66)는 뉴욕타임스에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다. 신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다"며 망연자실해 했다. 후안 예수스 가르시아(33)는 무너진 건물 앞에서 "아내가 저기 있다. 연락이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영국계 국제학교 교사인 제니퍼 스웨들은 "빠져 나오자마자 건물이 무너졌다"면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날은 1985년 1만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멕시코 대지진이 발생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슬픔을 더했다.

미구엘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멕시코시티에서만 44채의 건물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붕괴된 건물 가운데는 학교를 비롯해 아파트와 공장, 슈퍼마켓 등이 포함돼 있다. BBC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멕시코시티 코아파 지역 엔리케 레브사멘 학교의 붕괴 현장에서 어린이 32명을 포함해 37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아직 어린이 20여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3~14세가 다니는 이 학교는 4층 건물로 지붕과 발코니가 완전히 무너지며 건물 뼈대 일부만 남아 있다.

멕시코 정부는 지진 피해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엔리케 페나 니에토 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고, 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 지역은 대혼란에 빠졌다. 멕시코시티에서는 200만명이 전기 없이 밤을 지새웠고, 통신도 두절됐다. 지진 여파로 가스 배관이 파손돼 화재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매몰자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민들도 구조작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8)

-루터의 성경적 종교개혁과 이민교회(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교회 전통을 권위로 내세우는 구교와 같이 갈 수 없어
루터의 개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진 마음 갖는 것

2)루터의 고민과 해결책: 십자가 신학

(1)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

루터를 분리주의자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교 측에서는 루터를 아주 반항적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한 인물로 평가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출발일은 1517년 10월 31일이다. 이 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과연 그가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개신교의 출발을 세상에 알렸을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다.

루터는 도미니크 소속 신부인 요하네스 테첼(Johannes Tetzel)이 면죄부 구매를 부추기는 설교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자들이 빠져나온다는 설교를 들으며 미혹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마인쯔(Mains)의 대주교였던 알프레히트(Albrecht)가 저술한 소책자 '면죄부 지침서'를 읽은 뒤였다. 그가 모든 일을 뒤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95개 조항'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구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독립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개혁의 의지를 이곳에 담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심려를 기울여 작성한 '95개 조항'에 대한 토론을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다. 그가 요구하였던 것은 면죄부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두고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루터는 구교에 속한 성직자나 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곧 개혁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중요한 주제가 주어질 때마다 성경이 무엇이라 지시하는지 겸손하게 귀를 기울였다. 상대도 자신과 같이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 앞에 함께 엎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이다.

구교의 입장에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주장한 분리주의자이다. 구교의 입장에서는 루터가 교만한 자세로 날카로운 소리를 낸,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호전적인 자이다. 그러나 루터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의 진리 앞에 엄숙하게 엎드렸다. 성령을 통해 주신 확신을 사려 깊게 드러냈고,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을 뿐이다.

루터가 판단한 구교가 지닌 치명적인 문제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을 권위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들도 루터와 같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 단지 교회의 전통을 추가한 것이다. 나아가서, 성령이 아닌 교황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성경의 권위를 빙자하여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위치로 높인 것이다.

성경만을 최종 권위에 두지 않는 상황 속에서 루터와 구교는 한 길을 걸어갈 수 없었다. 루터의 성경적 개혁에 동조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절대적인 권위 앞에 겸손한 마음을 취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다. 루터가 이끄는 개혁의 영향력은 상대를 향해 자의적인 의견을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

(2)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루터는 스위스 출신 인문학자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와 교류하게 되었다. 그도 개혁적인 마인드를 지닌 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인간의 의지'에 관한 다른 관점으로 인해 논쟁이 벌어졌다.

1524년 에라스무스가 '자유의지론'을 출간하였다. 그는 성경은 자유의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맞서 루터는 1525년에 '노예의지론'을 출판하였다. 인간의 의지는 죄로 인하여 부패하였기에,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성경이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달렸다고 가르친다고 역설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루터가 발견한 에라스무스의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며 하나님의 예정 또는 이신칭의 같은 교리적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에게 교리는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요구된다는 것이다.

십자가 신학은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
연약함 통해 능력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반대로 성경의 명료성을 주장하였다.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며, 특히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나아가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것을 권장하였다.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부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성경 자체가 지닌 주관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유일한 주제이시다. 성경 앞에 자신의 편견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가 성경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설교에 대한 루터의 생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듯, 선포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는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였다. 즉, 설교란 회중을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회중에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내적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택하여 두신 도구로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애매하지 않다. 구약과 신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서 교리와 삶의 문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 받을 수 있다.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다. 문제는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에게 있다. 진정한 성경적 개혁은, 주어진 특정한 주제를 앞에 두고 함께 성령께 의지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답을 찾는 것이다.

(3)연약과 불안이 소망으로

1518년,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28개 조항'을 발표하였다. 종교 개혁의 긴 여정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자리에서 루터는 평생 그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 신학 사상인 '십자가 신학'을 발표하였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루터가 외친 말이다.

'십자가 신학'이란 어떤 것일까? 이 신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절대적인 진리라며 주장하던 자들을 논박하는 의미에서 형성된 신학이다. '십자가 신학'은 먼저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 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보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루터는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숨어 계시며 자신을 나타내신다.

인간의 이성은 도저히 십자가라는 매우 천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이로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하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아가서 '십자가 신학'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진리로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광경은 실로 참담하였다. 그는 연약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주장한다. 단지 십자가 뒤에 숨어계셨을 뿐이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그가 항상 십자가에 계셨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존재하신다는 바를 증명하려한 것이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학문적 이론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경험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성도와 교회가 역경을 경험하면서 이성과 경험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려 한다면 오직 절망뿐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뎠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즐겨해야 한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역설적인 십자가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루터는 매일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 그를 주적으로 삼은 로마가톨릭교회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았다. 예상 밖의 길로 나간 급진적 개혁자들로 인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작된 개신교 교회의 미래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맡은 업무가 매우 중하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 신학'이 더욱 정제되고 확인되어갔다.

covenantcho@yahoo.com

리더십 코멘터리 (50)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당신의 말은 어떤 씨를 남겼는가?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삶, 사상...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말은 에너지 가져...리더의 말은 그 사회의 내일과 미래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

'말'을 늘려서 발음하면 '마알'이 된다. 이를 해석하면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말이란 마음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곱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이고, 말을 험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을 험하게 쓰는 사람이다. 말에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들어 있고 창조적인 언어생활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교수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만 보인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지혜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인간의 운명은 입으로 결정된다. 사람은 입을 통해 말하는데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사상이다. 행복과 불행은 언어의 사용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말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의 말은 어떤 씨를 남겼는가?

말이 씨가 된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단편소설 '깊이에의 강요'라는 작품이 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류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열었다. 어느 평론가가 작품을 감상한 후 그림에 대해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남긴다. 이 화가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 닿는다'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만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깊이'라는 두 글자에 집착해서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결국 술과 약물로 혹사시키고 만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리고 139m의 높이에서 몸을 던져 인생을 마감하고 만다. 말 한 마디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를 알려주는 소설이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씨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말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때는 사람에게 에너지와 용기, 기쁨과 소망 그리고 행복을 주는 생명의 씨 역할로 심어질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절망과 우울, 슬픔과 고독 그리고 포기 등의 사망의 씨로 심어질 때가 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은 한 번 시작하면 시공(時空) 속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말이든 상대가 있어 하는 말이든 말은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져 씨가 되는 것이다.

말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의 근본적인 속성은 죽이는 것이고 파멸시켜 분열시키는 것이며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했더니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 수는 약 1만2000개이고, 여자는 약 2만5000개였다. 일생동안 말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3년이나 되었다. 과연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얼마나 선한 말, 살리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며 살아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말은 부정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음란한 말, 호색하는 말, 비판하는 말로 가득하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남을 칭찬하기 보다는 헐뜯기를 좋아 한다. 똑같은 것 일지라도 내 것은 좋게 말하고 남의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다.

리더로서 성숙한 언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의 자아가 왜곡되고 깨어진 거울처럼 되어있다면 그 마음의 자아에 반사되어 나오는 말은 자연히 왜곡되고 깨어진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탁월한 의사소통의 기술은 재주가 아니라 윤리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관계적 사고가 더욱 필요하다. 훈련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그때 비로소 성숙한 리더의 언어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봄은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장님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걸인에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구걸하는 액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걸인은 침통한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걸인의 목에 걸려있는 팻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을 적어놓았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그 행인이 그 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걸인이 행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감격해 하며 이렇게 물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뒤 50프랑까지 수입이 올랐습니다. 대체 어찌 된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쓰셨길 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겼나요?" 그러자 행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쓰여 있는 "저는 때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라는 말 대신에 '봄은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라고 써놓았을 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준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란 무미건조한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았지만, 거기에 좀 더 아름다운 상상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언어는 감성적인 아름다움이 풍부해야 한다. 같은 말이라도 유머와 위트가 넘치고 아름답게 꾸며주면 보다 여유가 넘치고 정감어린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따뜻한 말은 많은 돈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이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오늘도 내 주위를 감싼다. 그래서 내 곁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말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동안 내가 해놓은 말의 에너지를 느끼게 된다. 나 또한 상대방이 한 말의 에너지를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심지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평소에 감사, 기쁨, 만족, 행복, 사랑, 미소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여 그냥 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평소에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그리고 변명만 하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어두운 기운이 밀려와서 숨이 막히게 된다. 공기의 오염이나 물의 오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의 오염일 것이다. 사람은 말 한대로 살고 평소의 입버릇대로 살아간다. 리더의 입은 그 사회의 내일과 미래이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은 '따뜻한 말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했다. 우리 주변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직설적으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다고 해도 듣는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되는 것이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간에, 직장과 교회에서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인생은 생각과 비전과 입술의 고백으로 만들어져간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언어생활을 해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자신의 혀를 제어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성숙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리더의 모든 말들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과 희망으로 가득차야 한다.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일상의 은혜

더운 여름이 한창이어서 그랬는지 한 달 여 전부터 이십 년 정도 큰 변함없이 유지되던 몸무게가 훅 줄어들었다. 별다르게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하는 말도 듣기에 신경이 쓰였다. 그런 중에 장이 안 좋은 것 같은 증상이 몇 주 동안 계속 되었다. 요즈음에는 감기 걸리듯 암이 흔한데다가 최근에 조카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암이 발견된 지인들이 있어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담당 의사를 만났다. 의사는 십 년마다 한 번씩 장 내시경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불편한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장내시경을 의뢰해 주었다.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어서 비용은 부담이 없었지만 내시경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촘촘하게 적은 이메일과 편지를 읽으니 주의해야 할 일도 많고 한참 복잡했다. 이미 두 번 장내시경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옛날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준비한 것 같지 않았었는데 싶었다.

준비사항에는 검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철분이 들어간 비타민을 먹으면 안되고, 나흘 전부터는 씨앗이 있는 과일, 견과류, 베리 종류 등도 먹으면 안된다고 적혀 있었다. 그 주의 사항을 따르려니 아침에 주로 먹는 오트밀에 평소처럼 견과류를 넣어 먹을 수 없었고, 좋아하는 블루베리와 무화과도 그림의 떡이었고, 심지어 반찬 만들 때 깨소금을 넣을 수도 없었다. 마침 검사 전 마지막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딸 생일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생일축하 저녁식사에 들어 있는 견과류를 살살 털어내며 조심스레 저녁을 먹었다. 검사 하루 반 전부터 투명한 액체만 먹으라고 해서 물하고 코코넛 물만 마시면서 금식 아닌 금식을 했다. 검사 날은 아침부터 장 청소하는 물을 15분 간격으로 마시자니 물마시고 화장실 다녀오면 금방 또 물 마실 시간이고 그러면 다시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고 정말 15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지. 장내시경을 한 결과는 감사하게도 나쁜 것이 아닌 작은 혹 두개만 있어서 떼어 내었다. 이제 5년 후에 다시 장내시경을 하면 된다는 의사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5년 후면 나이도 더 많이 들어서 준비하려면 지금보다 더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

장내시경 준비로 며칠 동안 음식을 조심하려니 남편이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난 후 마켓을 가서 도대체 남편을 위한 식품을 무엇을 사야 하는지 한참을 생각하며 서 있었던 옛날이 기억났다. 남편이 즐겨 먹던 음식도 더 이상 만들어 줄 수 없었고 과일도 위산을 자극하는 과일은 살 수 없어서 눈앞에 쌓여 있는 과일과 야채를 바라보며 이것 저것을 사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기억이다.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이 나빠서 아예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에 많은 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평소에 식사를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음식에 특별한 제한 없이 다 먹을 수 있음을 특별히 감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지 못함은 왜 일까?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주신 것, 노래를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찬양도 드릴 수 있는 것,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리거나 제한을 받기 전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은혜인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누리고 있는 일상의 은혜를 눈물로 간구하는 이웃들도 많이 있는데도 말이다.

하나님, 언제나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일상의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제 마음 속에 간절하게 하소서.

lpyun@apu.edu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nygo4tg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moakyang.org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http://www.cpcofny.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B와 D 사이의 인생

프랑스의 현대 철학가이자 작가인 '장 폴 사르트르'가 남긴 "B와 D 사이의 C가 인생이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 뜻은 이렇다. B는 탄생을 뜻하는 Birth,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 그리고 C는 선택을 뜻하는 Choice다. 무슨 뜻일까?

사람의 삶 즉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일까? 어쩌면 그럴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사이의 기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 갈리기 때문이다.

물론 사르트르가 말한 선택은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종교가 아닌 신념(信念)이나 이상(理想) 또는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 중에서 오직 하나가 아닌 여럿의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부(富)나 권력(權力), 명예(名譽)를 선택하여 그 목표를 지향하며 나가는 것을 인생이라 표현했을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정도로는 철학자(哲學者)의 논리로는 너무 얕다. 철학은 좀 더 심오(深奧)한 것을 추구하는 까닭이다.

학문이나 이상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다. 종교는 거의 인생의 궁극적(窮極的) 최고를 제시한다. 단순한 인생을 뛰어넘는 그 정점(頂點)을 위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기독교의 답은 매우 명쾌하면서도 쉽다.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로 갈린다면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성경은 헷갈리지 않게 답을 제시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영원히 살아계셔서 인생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천명한다. 두 길이나 두 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이것 같게 혼란스럽지도 않다. 연필을 도르르 굴려 에라 모르겠다며 찍는 사지선답(四肢先答)이 아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다.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있는 인생의 선택이 왜 예수 그리스도며 또는 다른 무엇에 달렸는가를 규명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는 이미 제시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 없는 진리라고 말이다. 이에 이의(異議)가 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영원히 사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면 된다.

사실 기독교에서의 선택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택이 아니다. 선택에 그저 응답하는 것이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 응답하면 그때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 선물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는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다. 누구든지 주(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누구든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선택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며 그 응답의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다.

학문이나 철학이 제시하는 탄생과 죽음 사이의 인생문제는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전지전능(全知全能)한 신으로 믿는다. 말 그대로 전지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며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지와 전능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전지할 수는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보다 더 큰 사랑이나 관심이나 아름다움은 없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생에게 그 자신의 영원한 삶을 맡기시지 않는다.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으나 인생은 그런 얄팍한 선택여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B와 D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불멸의 사랑이 있을 뿐이다.

hanmac@cmi153.org

개혁정신 되새기고 장로교단 기본정신 재조명

PCUSA남가주하와이대회 주최 세미나 강사에 조셉 스몰, 김창환

PCUSA 남가주하와이대회 KPC(회장 제리 앤드류 목사)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가 21일 오후 2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되새기고 장로교단의 기본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첫 섹션은 조셉 스몰 박사(전 PCUSA 총회장)가 나서 '교회의 불확실한 미래와 위대한 목적'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조셉 스몰 박사는 "1920년에 미국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와 통합했으며 1958년에 미국장로교와 연합장로교가 연합했다. 연합장로교회의 규례서에 있는 6가지 교회가 가진 목적(복음의 선포, 양육, 거룩한 예배의 유전, 진리의 보존, 사회정의의 증진, 하나님나라를 이 세상에 제시할 것)을 포용했다"고 설명했다.

스몰 박사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성장 발전한다. 능력 있는 사도들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장했다. 다른 측면에선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에 입문했다. 크리스천만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를 채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PCUSA 님기주하와이대회 주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조셉 스몰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한편 저녁 집회는 고창현 목사 사회로 시작, 심재문 장로가 기도했으며 전미경 집사가 성경 봉독했다.

이어 최보윤 자매의 특송이 있었으며 저녁섹션 강사인 김창환(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박사가 문일명 목사의 소개를 받고 단상에 올라 '개혁신앙 중심의 공적교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박준호 기자〉

제36회 남가주찬양합창제 열린다

남가주한인교음협 주최, 10월 1일 은혜한인교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가 주최하는 제36회 남가주찬양합창제가 10월 1일(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교회음악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창제가 "개 교회 중심주의로 인해 교회 간 교류와 연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한 자리에서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축제의 자리로 마련하고자 준비됐다"며 "합창제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참가팀으로 참여하던 청중으로 참여하던 찬양을 들으며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찬양제는 총 8팀과 2개의 찬조팀이 출연한다.

참가팀은 △은혜한인교회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선한목자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베데스다대학교,△남가주장로중창단 △Heavenly Mission Chorale △아리랑 합창단 등이며 찬조출연은 △배주은 자매(제3회 학생찬양경연대회 우승자) △California children's Chorale.

▲문의: (310)381-9835, 이메일: hchon@g.ucla.edu

〈기사제공: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미주장신대에서 열린 성화와 칭의론 특강에서 강사로 나선 숭실대학교 권연경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특강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장신대 주최 "성화와 칭의론" 특강

강사 권연경 교수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주최한 성화와 칭의론 특강이 21일 오후 7시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권연경 교수(숭실대학교)가 참여했다.

권연경 교수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경영방침은 안바뀐다"며 "바울역시 믿음을 말했지만 도덕적으로 행위 없음을 말하지 않았다.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 구원에 행위가 필요 없음은 오직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인간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기를 역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구원의 확신이 아닌 두렵고 떨림을 동반한 철저한 자기점검이다. 즉 행위 없이 구원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란 것을 믿었다"며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분이란 말이며 성령역시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라 말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복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다. 은혜개념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 의미는 공짜다. 은혜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자랑을 막는다. 도덕적 자랑이 아닌 인간적 자격들, 인간세상에서 통하는 자격들과 그에 상응하는 자부심을 아무 의미가 없게 한다. 하나님은 그냥 불러주신다. 그래서 자랑을 막아주신다. 은혜의 효과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서 재발견 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과 죄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속의 영광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며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영생소망, 의의 소망 바라보고 살게 하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삼위일체 장로교회 국제연합총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총회장 정영수 목사 유임, 부총회장 김성신 목사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 정기총회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총회장 정영수 목사)는 19일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갖고 총회장에 정영수 현 회장을 유임시켰다.

정영수 총회장은 "부족한 종이 다시 중책을 맡았다"며 "앞으로 총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무 전인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총회는 회원점명, 서기 및 회계보고, 안건 및 토의, 임원선출로 이어졌다. 그리고 회원인 김난희 목사의 선교활동보고 시간을 가졌다.

총회가 열리기전 시작된 예배는 김성신 목사 사회로 시작, 최태근 장로가 기도했으며 정영수 목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살전5:16-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음은 삼위일체장로교회국제연합총회 신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정영수 목사 △부총회장: 김성신 목사 △서기: 김경희 목사 △회계: 권태근 장로 △총무: 전인철 목사 △LA지역노회장: 김선희 목사 △오렌지카운티지역 노회장: 김난희 목사.

〈박준호 기자〉

고 임동선 목사 1주기 추모행사가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위쪽은 추모음악회 모습_ 사진 아래쪽은 1주기 추모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상앞에 마련된 고인의 유품에 희망봉을 놓는 장면

고 임동선 목사 추모음악회 및 추모예배

동양선교교회,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월드미션대학교 공동주최

고 임동선 목사 추모음악회 및 추모예배가 23일과 24일 양일간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토요일인 23일 오후 7시에 열린 추모음악회는 고 임동선 목사의 서거 1주기를 맞아 고인의 평생 사역의 중심인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를 주제로 삼아 사역했던 이 시대 거장의 모습을 음악을 통해 추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김지훈 목사의 기도와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의 추모사 그리고 추모동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열린 추모음악회는 라크마 챔버오케스트라와 챔버콰이어(지휘 윤임상 교수)의 공연으로 시작돼 교육, 봉사, 선교, 소망영광이라는 주제로 나눠진행됐으며 월드미션대학교 교가, Ave Verum Carpus, 오 아름다운 주의 집 등을 불렀다.

그리고 소프라노 신선미, 김유리, 김지현, 바리톤 장상근, 테너 오위영이 솔로와 듀엣으로 노래를 불렀다.

이날 음악회는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을 이날 모인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남종성 목사(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24일 오후 4시에 열린 추모예배는 김지훈 목사 인도로 시작, 이정근 목사(전 미주성결대학교 총장)가 설교했으며 고인의 차녀 임승향 권사가 추모사를 전하고 고인의 차남 임승천 집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예배는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축도했으며 예배가 마친 후 단상에 마련된 고인의 유품에 이날 참석한 모든 이들이 희망봉을 놓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넷째, 오직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8절).

예수님은 8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인 예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성령을 받은 후 그 권능으로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인으로나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교회나 성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이유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상식, 자기 경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좇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 하는 안일한 자세가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그 예수님을 증거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튀스' 라는 단어는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순교자 martyr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 생활해야 한다는 비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자동으로 천국 간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가지'하는 값싼 교리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성도요 참된 증인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마라나타!

rhokisong@yahoo.com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뉴욕성실장로교회 선교사 파송감사예배

뉴욕성실장로교회(담임 이길호 목사)가 10월 29일(주) 오후 5시 김도균(위현정, 주안, 주은) 목사 가정의 니카라과 선교사 파송감사예배를 드린다. 김도균 목사는 지난 19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문의: (516)487-4230

2017 마하나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뉴욕마하나임선교교회(담임 박춘수 목사)가 주최하는 2017 마하나임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이 10월 1일(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한식체험, 한식 만들기, 한글 이름쓰기, 한복체험 등 음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한국음식문화 체험관에 지역주민들을 초청한다. 주소는 220 Berry Hill Road, Syosset NY 11791.

▲문의:mahanaimfood@gmail.com

"미주 동부지역 고구마전도학교 임상 세미나"
10월 17-18일,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미주 동부지역 고구마전도학교 임상 세미나"가 10월 17일(화) 오전 9시-오후 8시, 18일(수) 오전 9시-오후 5시 이틀간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담임 조진모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고구마전도왕 김기동 목사(소중한교회 담임)로 고구마글로벌미션 대표. 고구마글로벌미션은 "한 영혼을 소중히"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구마전도학교를 지역 교회에 세우고 있는 비영리전도단체다.

참가대상은 목사, 사모, 전도사(강도사), 평신도 등이며 참가비는 120달러(체크 Pay to order: GGM). 참가신청서는 이메일(kucp@kucp.org)로 보내면 된다.

숙박을 원하면 교회 주변 호텔을 이용하면 된다. 교회가 추천하는 주변호텔은 Best Western Fort Washington Inn.

▲문의: (267)475-8134 민경민 장로

KAPC 뉴욕동노회 제81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제81회 정기노회
퀸즈한인교회의 이규섭 목사 치리요구 안 다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동노회(노회장 황상하 목사) 제81회 정기노회가 9월 19일 오전 10시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무처리를 통해 △뉴욕성실장로교회(이길호 목사)의 김도균 목사 니카라과 선교사 파송 △주사랑장로교회(정준성 목사)의 손창민 목사 가입 및 부목사 청빙 청원 △뉴저지임마누엘장로교회(장기수 목사)의 교회이전 청원 △행복한교회(김영일 목사)의 교회폐쇄 청원 △뉴저지 장기수 시찰장의 로버트 바커 전도사의 목사고시와 목사안수 청원 △이영기 목사의 북가주노회 이명청원 등을 허락했다.

뉴욕성실장로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김도균 목사는 동 교회의 파송을 받아 내년 1월부터 니카라과 선교사로 가게 된다.

오후 2시 열린 안수식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로버트 바커(Robert Barker) 목사는 뉴저지임마누엘교회(장기수 목사)가 교회당을 빌려 사용하는 미국교회 설립 장로의 손자로 임마누엘교회 중고등부에 출석하며 성장했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재학시 임마누엘교회 전도사로 사역했으며 브루클린제일교회(담임 이윤석 목사)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다 한인목사의 딸인 에스더 사모와 결혼했다. 현재는 델라웨어 사랑의교회(고신측) 유스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한편 퀸즈한인교회는 전 담임 이규섭 목사의 치리를 요구하는 서한을 이 목사가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뉴욕동노회에 보냈다.

뉴욕동노회는 임사부에서 그 안을 다루고 이규섭 목사를 불러 상황을 파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회 핵심 관계자는 퀸즈한인교회가 교단소속이 아니며, 설교표절이 목사의 신분에 벗어난 명시적 내용이 아니고 나머지 퀸즈한인교회 측의 주장은 이로부터 파생한 지엽적인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회 열방교회 초청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9월 월례회가 열방교회(담임 안혜권 목사) 초청으로 동 교회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오전 11시에 드린 예배는 소의섭 목사 사회로 림인환 목사의 기도 후 안혜권 목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 목사는 "가난하고 깨끗한 물이 없는 나라에 먹을 양식과 깨끗한 마실 물을 위해 우물파기를 하는 열방교회를 위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부탁하는 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교협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종교개혁', '조나단 에드워즈'
뉴욕교협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 강사 정부흥 목사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이 주최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가 지난 25일과 26일 교협회관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10월 2일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유럽종교개혁지 순방 대상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열렸다.

첫날 세미나는 "체코,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종교개혁과 남긴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사 정부흥 목사가 인도했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강사를 소개하면서 "교협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협력자들을 만나게 된다며 오래전 알았던 정부흥 목사와 갑자기 연락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흥 목사는 이날 (구)교회 변천사 도표를 제시하며 최초의 종교개혁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존 후스를 시작으로 종교개혁의 도덕적 요인과 지적요인을 설명하고 마틴 루터에 대해 강의했다.

독일의 개혁운동과 쯔빙글리의 스위스 개혁운동, 마틴 부써, 존 칼빈의 영향과 네델란드, 프랑스 스코틀랜드까지의 종교개혁에 대한 총제적인 강의를 이어나갔다.

오찬 후 오후에는 유럽종교개혁지 순방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특강"으로 진행됐다.

강사 정부흥 목사는 현재 예일대학교 조나단 에드워즈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자유대학교(남아공), Ph.D. 예일대학교, Ph.D. Research Scholar, 드류대학교, 총신신대원, 고신대를 졸업했다.

저서로는 "자유의지", "놀라운 회심이야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 등이 있다.

〈유원정 기자〉

프라미스교회 후임에 허연행 수석부목사
24일 공동회의서 88% 지지 얻어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후임목사로 허연행 목사(사진)가 선임됐다.

지난 24일 아틀란타, 뉴저지, 퀸즈성전 주일 1, 2부 PIF 예배 후 있었던 임시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후임투표 결과 허연행 목사를 추대하기로 결정한 것.

프라미스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후임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찾지 못해 내부에서 추대하는 교회 헌법에 의거해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허연행 목사는 지난 22년 동안 수석부목사로 김남수 담임목사의 가장 가까이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해왔다.

이날 투표는 동 교회가 소속된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에 승인을 얻고 지방회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진행돼 투표자 1,423명중 88.12%의 득표를 얻어 헌법에서 요구하는 2/3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후임 담임목사로 결정됐다.

교회 측은 김남수 목사의 은퇴식(원로목사 추대식)과 후임 허연행 목사의 취임식 일정은 행정장로회(당회)에서 논의 후 결정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연행 목사는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드류신학교, 고든콘웰신학교를 졸업하고 만 22년째 프라미스교회에서 사역 중이며, 현재 뉴욕 단비TV 이사, KIMNET 이사, University of Valley Forge 이사, AG 뉴욕신학대학 겸임교수로 봉사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허찬숙 사모와 두 딸 허은(장녀, 기혼) 허린(차녀, 미혼)이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길 가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0일 9월 월례회를 열고 사역보고 및 향후 계획들을 점검했다.

12월 3일(주) 후원자의 밤에 참석하는 후원자들에게 만찬과 더불어 예년보다 더 푸짐한 선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올해는 소식지 '오병이어'를 발간하지 않는 대신, 웹사이트를 십분 활용해 지난 8월 엘살바도르 선교보고 및 간증들의 글을 게재하며 아동결연에 박차를 가하기로 논의했다.

사역보고에서 전희수 사무총장은 "과테말라 지원 사역 중 교실 증축사업(2017년중 완공)은 본 기구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이 인도해주셨다"며 화장실과 부뚜막 사역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금주 목사 인도로 김인한 장로가 기도하고 유상열 목사가 설교한 뒤 회장 및 회원들과 결연아동 및 선교사들을 위해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이종명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상열 목사는 "길은 가까울지라도"(출13:17-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을 살다보면 가깝고 쉬운 길이 있고 멀고 험한 길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사에 이르는 가깝고 쉬운 길을 두고 먼 홍해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목사는 "오늘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멀고 험한 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며 둘째, 그 길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가게 하신 길이기 때문이며 셋째, 그 길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힘을 얻고 끝까지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 기구의 10월 월례회는 25일(수)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정기총회 및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
후보 기호추첨 및 서약서 서명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오는 10월 23일(월) 제 43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44회기 정부회장 후보 등록 공고와 정기총회 소집 공고를 냈다.

뉴욕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9월 21일 오전, 교협회관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들과 모임을 갖고 후보 기호추첨 및 서약서 서명을 받았다.

회장 후보에는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부회장 후보에는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와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가 등록했으며, 19일 선관위 서류심사를 모두 통과했다. 복수의 부회장 후보들은 기호추첨을 통해 1번 김영환 목사, 2번 정순원 목사가 결정됐다.

후보자들은 입후보자 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입후보자 확정 공고 후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적혀있으며, 이를 어긴 것이 객관적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안에 따라 후보탈락, 당선무효, 직무정지 등 징계할 것이며, 총회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세상법정에 가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후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식사접대(편법 영수증 처리 포함),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 △교협 회비(총회 등록비) 대납 △상대후보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하며 금품을 주는 행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및 일체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이다.

또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단체나 개인은 교협차원의 징계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오는 29일에는 후보자 언론 토론회가 열린다.

〈유원정 기자〉

퀸즈한인교회 장로임직예배를 마치고 순서자들과 당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되라"
퀸즈한인교회 장로 4명 임직예배...당회 재정비

퀸즈한인교회가 지난 24일 오후 5시 장로임직예배를 드리고 4명의 장로를 세웠다. 장로 임직자는 박인섭, 전유항, 정경진, 차승훈.

퀸즈한인교회는 담임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등 내부의 어려움으로 일부 당회원이 사퇴하고 당회에 6명이 남았으며 이날 4명이 임직을 받고 당회원이 됨으로 당회는 10명이 됐다. 이날 임직식 후 10명의 당회원들이 모여 당회를 열었다.

장로임직 4명을 대표해 전유항 장로는 답사를 통해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배는 임시 당회장 정승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설교는 퀸즈한인교회가 속한 연합 선교단체인 KPM 의장 류인현 목사(뉴프론티어교회)는 여호수아 4:19-24를 본문으로 "기념비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류 목사는 말씀을 통해 "퀸즈한인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팀웍이 좋은 교회 △스케일이 아니라 스토리를 다음세대에 남기는 교회가 되라"고 당부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부흥사경회 첫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가운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자"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부흥사경회, 강사 황의영 목사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추계 부흥사경회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황의영 목사(SBM 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 총재)를 강사로 열렸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사경회에서 황의영 목사는 사흘간에 걸쳐 "성령에 이끌리는 삶"(마4:1-11), "사명을 감당하는 삶"(계1:8-10),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요11:38-4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기태 목사 인도로 진행된 첫날 사경회에서 황의영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모두들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본질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며 "우리 생각의 초점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놓아야 한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이 광야였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그러기 위해 ①신앙생활의 기초를 확실히 하라 ②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③신앙생활의 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가는 것이다 ④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⑤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택한 그릇" ...제37회 HYM청년연합집회

10월 7-8일 세리토스선교교회, 강사 임재웅 목사

제 37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오는 10월 7일(토)과 8일(주) 양일간 세리토스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 주제는 "택한 그릇"(행 9:15-20)이며 강사는 임재웅 목사(한국 신촌교회 담임).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21일 정오 LA 한인타운 내 신북경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남가주청년연합회(HYM) 대표 더글러스김 선교사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대변혁을 맞이했다. 당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유다집에 머물던 사울을 만나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유대인을 박해하던 자라며 사울을 만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자 주님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다"며 "마찬가지로 오늘날 청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한다. 당시 사울에게 한 '택한 나의 그릇'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이번집회를 통해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갖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37회 HYM청년연합집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더글러스 김 HYM 대표

김 선교사는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받은 청년들이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갖고 삶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회는 HYM 청년연합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첫날은 세리토스선교교회 안정현 형제가 둘째 날은 국중현 형제가 찬양인도를 하게 된다.

김 선교사는 이어 "HYM 청년연합집회와 청년선교 사역이 오늘날 타락해져가는 선교지, 미국을 살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청년들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기도로 결단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기도와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강사에 신애라, 노신영, 유진현

충현선교교회 주최 자녀교육 세미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가 주최한 자녀교육세미나가 지난 17일 오후 1시40분에 열렸다. 이날 강사는 탤런트 신애라 집사, 노신영 교수, 유진현 선생이 강사로 참여했다.

'부모의 사명-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신애라 집사(HIS 대학교 박사과정)는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언급하고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땅이자 기업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할 때 한해 농사의 결과를 얻듯이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모습은 내 농사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주신 아이들은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던지 내가 가장 잘 맞는 부모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때때로 찾아오는 아이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대화법-대화법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를 맡은 노신영 박사(University of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교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게 된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이후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과 수치심이 들어오게 됐다. 두려움 수치심이 들어와 핑계 비판 떠넘기기 불평이 생겼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탄의 밥이 된다"고 말했다.

노 박사는 "대화에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등이 있다"며 "두려움, 핑계, 불평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모습은 죄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으셨다"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대화는 감사 찬양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리더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유진현 선생(Whittier College Counseling Center Pre-Doctoral Intern)은 "이 세상의 리더는 곱하기형 리더가 있고 나누기형 리더가 있다"며 "나누기형 리더는 군주형, 독재자형, 천재형, 결정권자형, 관리형이 있으며 곱하기형 리더는 재능탐험형, 존중형, 도전형, 논의형, 투자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격이 안된 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가 환경미화원이 되면 동네가 아름다워진다. 자녀에게 성경속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하기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리더는 예수님이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도록 부모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자녀교육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제34회 연례기금모금 만찬행사에서 위탁부모인 딘서 씨가 주제강연을 하고있다

현장 기부와 경매로 10만 달러 모금

한인가정상담소 제34회 연례기금모금 만찬 성황

아시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한데 모아졌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21일 'Fostering Love'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4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KFAM's 34th Anniversary Fundraising Gala)'에 약 4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 한인가정상담소가 2014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둥지찾기' 프로그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만찬에서는 15분간 이어진 기부금 후원과 사일런 옥션(Silent Auction) 등을 통해 약 10만 달러 이상을 모금, 한인은 물론 아시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둥지찾기 1기로 교육을 받아 위탁가정이 된 후로 3년간 12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딘 턴마이어-서와 마리아 턴마이어-서 부부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위탁가정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함을 공유했다.

이어진 특별 공연 순서에서는 위탁가정을 통해 연을 맺은 형제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다. 위탁부모인 그레이스 권씨는 "이 아이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입니다"라고 자신의 위탁아이인 큰 아들을 소개한 후,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라며 둘째 아들을 소개했다. 형제가 호흡을 맞춘 공연이 끝나자 행사장은 큰 박수로 가득 찼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자는 의미를 담아 올해 주제를 '포스터링 러브'로 정했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큰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면서 "우리 커뮤니티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둥지찾기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아이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한인 및 후원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소망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기념 후원의 밤 성황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이 23일 오후 5시30분 Cerritos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10년전 소망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황무지가 떠오른다. 죽음준비란 말만 꺼내도 모두가 고개를 돌렸었다"며 "창립 4년이 되었을 때 고비가 찾아왔다. 사선을 넘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포기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소망소사이어티는 너무도 변했다. 동역자들이 생겼고 헌신하는 봉사자들, 뒤에서 도움을 주는 이사진과 고문들,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다. 이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듯 신비롭게도 하나씩 조각들이 맞춰져 온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다.

유 이사장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도록 소망 소사이어티는 다음 1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덧붙였다.

영김 전 가주하원의원 사회로 시작된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대표)가 기도했으며 소망 10주년 동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유분자 이사장이 환영인사, 최경철 사무국장이 소망비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기철 LA총영사와 마크브룩스 UCI Willed Body Program 디렉터가 축사했으며 박근선 지부장(소망소사이어티 차드지부)가 연설했으며 10주년 기념 케익 커팅 시간을 가졌다.

소망소사이어티는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7년 창립한 비영리 단체다.

〈박준호 기자〉

나성서울코랄 제73회 정기연주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나성서울코랄 제73회 정기연주회

나성서울코랄(단장 안혜숙, 지휘 진정우 박사) 제 73회 정기연주회가 24일 오후 7시30분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안혜숙 단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함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 이럴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 받을 수 있는 음악을 나눌 수 있음이 큰 축복"이라며 "이번음악회를 통해 저희 나성서울코랄을 성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준비된 순서들을 통해 평안함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Suite for Ordinary Mass △Korean Lyric Songs △Sacred Songs 등 세 개의 무대로 꾸며져 LA의 가을밤을 아름답게 적셔주었다.

또한 바이올린 이수정, 클라리넷 백철, 피아노 최수연의 3중주 연주, 소프라노 김줄리, 테너 전승철, 클라리넷 백철이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나성제일교회 '창립 50주년 집으로 오는 길'

나성제일교회는 교회창립 기념행사인 50년사 화보 출판 감사예배 및 홈커밍데이를 10월1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본 교회는 1967년 창립되어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간의 흔적을 모아 〈사진으로 보는 나성제일교회 50년사〉를 출판하였다. 이날 행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한 모든 분들께 만찬과 함께 화보집을 선물로 증정한다.

▲ 문의: (213)388-7101

제21회 한인무료 건강박람회

한미메디컬그룹(KAMG)와 굿사마리탄 병원이 함께하는 제21회 한인무료 건강박람회가 30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굿사마리탄병원 컨퍼런스센터(637 S. Lucas Ave, LA)에서 개최된다. 이번 건강박람회는 콜레스테롤 검사, 혈압검사, 당뇨수치 검사, 안과검사, 치과검사, 발검사, 이비인후과 검사, 폐활량 검사, 뇌졸중 검사, 하지정맥류, 그밖의 정형외과, 독감예방주사(18세이상), 암/종양학, 통증관리 등 전문의 상담 등이 실시된다. 검진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12시까지다.

▲문의: (213)977-21221(Ext.2)

박종호 초청 '초심' 찬양과 간증콘서트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는 박종호 성가사 초청 '초심' 찬양과 간증콘서트를 10월 1일(주) 오후 1시 45분(4부 예배)에 갖는다.

▲문의: (909)455-6522, (909)203-347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가을부흥회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가을부흥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29일(금)부터 10월 1일(주)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성준경 목사(인천 만수감리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29일(금) 저녁 8시, 30일(토) 새벽 5시30분, 저녁 8시, 10월 1일(주) 1부 예배와 3부 예배다.

▲문의: (972)258-0991

유니온교회 2017 말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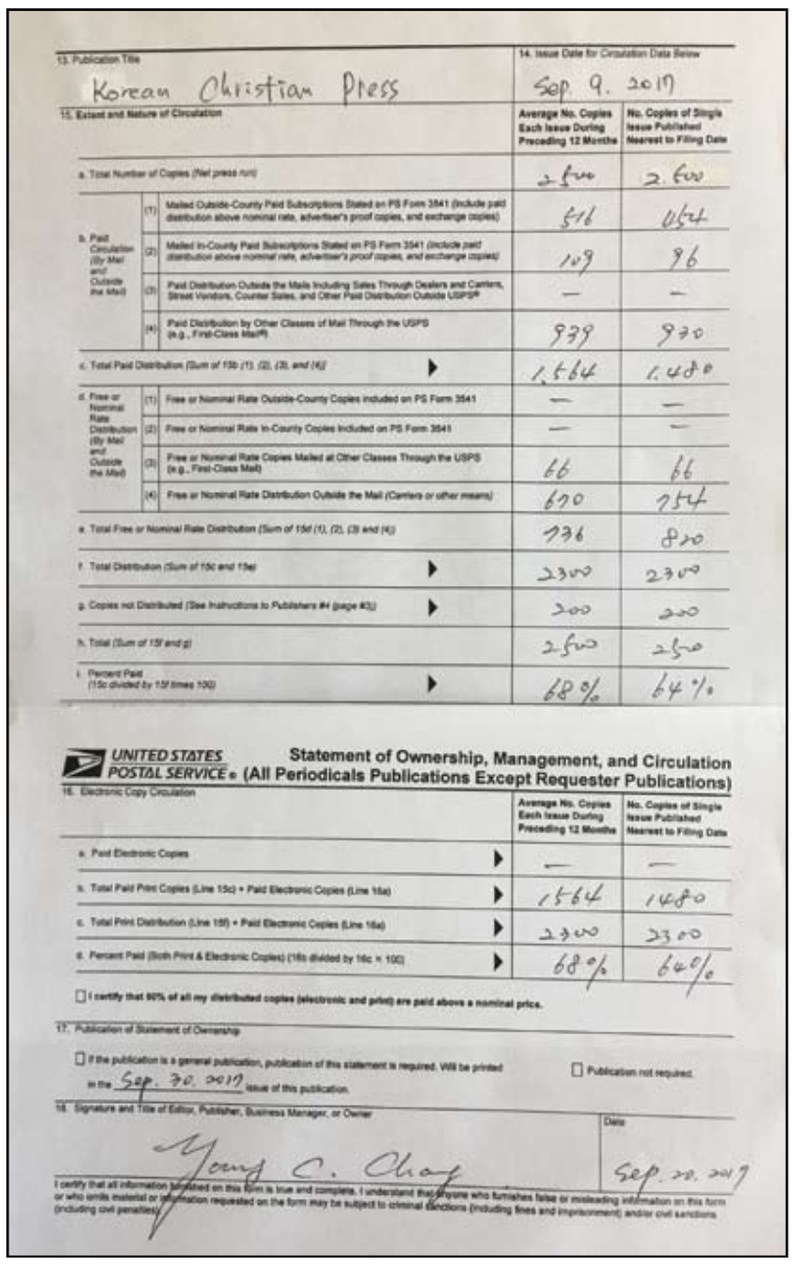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는 2017 말씀축제를 29일(금)부터 10월 1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이스라엘 및 구약성서 전문가이자 터치바이블원장으로 사역하시는 김진산 목사이며 일정은 29일(금) 오후 8시, 30일(토) 오전 6시30분, 오후 7시, 10월 1일(주) 오전 8시, 11시, 1시30분

▲문의: (626)858-8300

캘리포니아선교대학 개교예배

선교사 양성 전문 산학대 캘리포니아선교대학(California University of Missions 총장 이성희 박사) 개교예배가 9월 30일(토) 오후 5시 미주장신대학교 별관에서 갖는다. 이날 말씀은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박성민 총장특보가 맡는다.

▲문의: (714)393-0970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총회장 박삼열 목사, 부총회장 홍동필 목사

예장합신 제 102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02회 총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 제102회 총회가 19일 경북 경주 신평동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됐다.

개회예배에서 최칠용 총회장은 '우리가 전해 받은 복음'(고전 15:1-8)을 주제로 설교하며 복음 위에서 진리를 굳건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최 총회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도 받았다"며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늬만 복음이면 믿음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수수하게 지키자"고 덧붙였다.

개회예배 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박삼열(인천 송월교회) 목사를 총회장으로, 홍동필(전주 새중앙교회)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목사는 총대 202명이 투표한 임원 선거에서 183표를 얻어 제102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홍 목사는 총 202표 중 과반수인 127표를 얻어 합신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백성호(부천 역곡동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이날 예장합신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는 총회 산하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하도록 청원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가 규정한 동성애 지지 및 옹호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 동성애 옹호 발언이나 설교 강연 등을 하는 경우다.

총회의 핫이슈 중 하나였던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두날개)'에 대한 신학 조명 요청 건은 기각됐다.

합신 경기중노회와 중서울노회는 지난해 기각된 두날개 신학 조명 요청 건에 대해 질의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총회 정치부는 20일 정회에서 신학연구위원회(구자신 위원장)에 신학 연구 요청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이 정회시간을 30여분 넘기며 팽팽한 토론을 거듭한 뒤 해당 제안을 표결에 부치게 됐다. 거수투표 결과 헌의안 기각 104표, 정치부 안 채택 30표의 결과로 두날개 건은 전격 기각됐다.

지난 1년간 연구한 여성 목사안수 불가는 재확인 됐다.

총회에 보고된 예장합신 교세는 교회 948개, 목사 2548명, 성도 15만여 명이다.

총회장 김상석 목사, 부총회장 김성복 목사

예장고신 제 67회 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배굉호 목사)이 19일 충남 천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예수를 바라보자'(히12:1-3)란 주제로 제67회 총회를 개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각 노회에 소속된 목사와 장로 총대 497명이 참석했다.

예장고신은 임원선거에서 김상석(부산 대양교회) 목사를 총회장으로, 김성복(부산 연산중앙교회) 목사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상석 목사는 총 투표수 495표 중 과반수인 찬성 403표를 얻어 제67회 신임총회장에 당선했다. 김성복 목사는 214표로 과반수를 얻어 부총회장에 선출됐다. 부총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2차 투표 시 다수 득표자로 선출했다.

총회 둘째날 회무에서 담임목사가 성도들을 세심히 알고 목회를 원활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출석교인 30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예장고신 신학위원회가 개최한 교회 적정·최대규모에 대한 심포지엄 내용을 수렴해 현유광 명예교수가 제출했다. 현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담임목사가 성도를 세심하게 잘 돌볼 수 있는 규모는 예배 출석 인원 150여명(재적 250여명)이 좋으나 오늘날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0여명(재적 500여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발표했다. 최대규모는 500여명(재적 900여명)이라고 제시했다.

셋째 날에는 고신대 신대원 교수회의 견해 표명을 통해 이신칭의 논란에 대한 교단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칭의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일부 총대는 신대원 교수들의 칭의론에 대한 신학적 입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동성애·동성혼에 대한 총회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동성애 관련 신학 가이드라인을 1년간 연구해 제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개혁교회(RCN)는 지난 6월 목사, 장로 등 직분자에 대한 여성안수를 통과시켰다. 예장고신은 이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해외교류교단의 여성안수 결의에 따른 대책의 건'을 1년 간 연구과제로 맡기기로 결정했다.

임보라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예장고신은 임 목사가 신론에서 이단성이 크고 동성애를 성경적이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된 가족 제도를 말하고 있고 정통교회와 신학을 공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예장고신 소속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게는 임 목사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김성로(춘천 한마음교회)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는 고신대 신대원 교수회에 의뢰해 연구하고, 활동에 대해서는 이단대책위원회와 이단대책상담소에서 조사해 다음 해 68회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는 1년간은 교단 차원에서 김 목사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임보라, 김성로, 이인규 참여 교류금지

예장합동 총회, 나머지 회무처리

지난 18일부터 4박5일간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예장합동은 나머지 회무들을 처리했다.

△충남 부여군 구룡면에 건립 추진 중인 이슬람 할랄 푸드(Halal food) 도축장에 대해 교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임보라(섬돌향린교회) 김성로(춘천한마음교회) 목사 이인규(감리교 권사)씨에 대해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고 김풍일씨, 정동수(사랑침례교회) 목사에 대해선 1년간 예의주시하기로 결의했다. 스웨덴의 기독교 신비운동가 임마누엘 스베덴보리(Emanuel Swedberg)는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연합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성애자와 동조자 및 옹호자의 교단산하 신학교 입학,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성애자가 요청하는 세례 및 주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목회자 정년 연장(75세) 안은 부결됐다.

△다음 회기부터 총회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키로 결의했다. 총회임원 선거방식이 바뀐 것은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후보 등록인원에 상관없이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의 교류 단절' 관련 보고 통과를 부결시키고 신학적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총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했다.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은 7년째 고배를 마셨다.

동성애 옹호하는 '성 평등' 개헌 안된다

교계 · 시민단체, 개헌 저지 · 인권위법 개정 나섰다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까지 동성애 '코드'를 심으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차별금지법을 8차례나 막아낸 시민들은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까지 결성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동성애 옹호·조장 핵심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규정도 삭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동성애 옹호·조장 논리를 심으려는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성평등' 조항의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와 인권위원장 임명제청권 명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당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선 '여성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 했다. 이런 꼼수를 알아챈 시민단체들이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하루 2000여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용어라도 주의 깊게 사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배경에서 '헌법개정 주요 의제'에 "양성평등보다는 사회적 성 측면이 강조되는 성 평등으로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로 명시된 것이다.

동성애 이슈는 개헌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주도한다.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동성애 동성혼 논의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만약 양성평등이 성 평등으로 바뀌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 예산지원까지 가능해진다. '양성'이 빠질 경우 동성결혼도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가 헌법기관이 되면 국가인권위법 2조3호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도 자동 격상된다.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구절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헌법기관 격상이 이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 동성애는 헌법에서 보장받는 성행위로 올라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위법인 군형법 92조의6은 무력화되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인권침해로 전면 차단된다.

개헌의 칼자루는 일단 민주당 의원 15명, 자유한국당 13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2명 등으로 구성된 개헌특위에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도 교회에서 OUT

예장통합 총회, 교회 안 마술과 요가 금지

예장통합 정기총회 둘째 날 저녁 회무에서 총대들은 "교회 안 마술과 요가를 금지해야 한다"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보고를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

보고서를 보면 이단대책위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교육, 선포, 실천하는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인간이 눈속임을 위해 만든, 오락·문화 영역에 머물던 마술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요가에 대해서는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일 뿐 아니라 힌두교인으로 되게 하는 수단'이라 정의하고 '정서 안정, 다이어트, 스트레칭 등을 위한 단순한 운동이라 단정하면서 교회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어 참여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마술의 경우 기독교계에서 곳곳에서 전도의 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셋째 날 회무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자는 안이 통과됐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날 교단 헌법의 '직원선택' 관련 시행세칙에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에 동성애자는 교회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총대들은 동성애 옹호론자나 지지자도 대상에 포함 시켜야 하며 교회 직원 뿐 아니라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 교직원이 되는데도 자격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전체 결의를 이끌어냈다.

전날 회무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의 신학대 입학을 금지하는 안을 결의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

침신대 교수들..." 타 신학대도 동참하길"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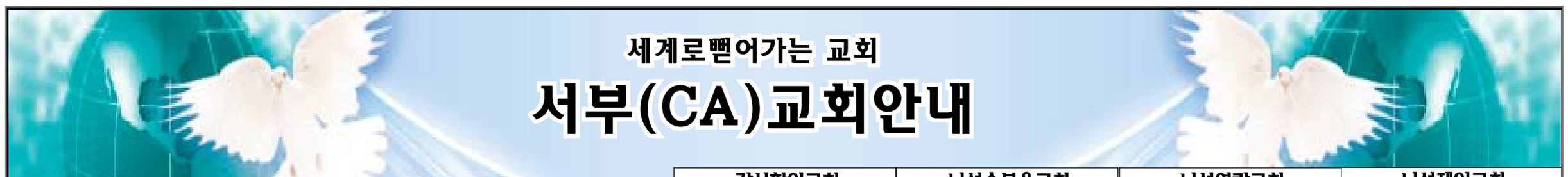
전국 대학교수 연합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신학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침신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 교수들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질서에 역행한다"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동성애 집회인 퀴어(Queer) 행사가 한국 사회의 전통과 다수자의 권익을 해치며, 사회에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성에 대한 혼돈된 인식을 전달할 위험이 크다"면서 "반기독교적 정서를 부추기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국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준비한 김종걸 침신대 신학과 교수는 "이미 미국의 미국장로교회(PCUSA)나 미국연합감리교회(UMC) 등의 교단은 동성혼 문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바른 신학과 성경적 정체성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침신대의 성명서가 타 신학대에도 영향을 주고 모든 신학교가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 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Fax(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714)646-9259 Fax.(714)646-9264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의 창 (87)

선교와 상황화(常況化. Contextualization)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현지인의 가슴 속에 잘 심을 수 있을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들 현지인들은 전통 문화에 둘러싸여 있고 선교사도 자기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는 복음을 막거나 훼손하기 쉬운 인간 문화의 틀을 벗겨야 한다. 이는 상황화의 문제이다.

상황화는 복음이 현지인에게 적실성(Relevance)있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러한 과정이 무시될 때 복음은 이질적이며 공허하게 들리기 쉽다. 지난 19세기 서구선교는 대체적으로 상황화 신학에 취약했다. 그 결과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게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으며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되었다.

오늘의 한국 선교는 어떠한가? 우려되는바 일부 선교단체와 사람들이 일방통행식 서구 선교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지문화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십자군처럼 급진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황화에 대한 개념과 대책 없는 선교는 현지 나라뿐만 아니라 동료 선교사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선교지는 전도자의 본토, 아비집의 연장선 상이 아니다.
현지 문화를 경시하는 전투적인 선교는 충돌할 수 밖에 없다.
상황화는 복음이 토착민에게 적실성 있게 전하기 위한 방편이다.

1. 상황화에 대한 문제의식

상황화(常況化, Contextualization)란 시대와 대상 그리고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으로 영원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적합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 되었지만 그 표현양식(modes)은 그렇지 않기에 시대와 대상에 맞게 상황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선교학자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ls)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선교에 필수적인 상황화 작업에 취약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복음의 순결성(the purity of the gospel)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습, 사고 패턴, 가치체계, 행동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치 못한 때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선교에 있어서 씨앗과 함께 토양도 준비되어야 한다.

2. 상황화의 역사적 배경

선교학적으로 상황화의 역사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서구 식민지들은 2차 대전이 끝나자 독립국가들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신생 독립국가들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제각기 전통문화에 근거한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교회도 이러한 정치적 지각 변동 아래서 영향을 받았다. 그동안 서구 문화와 함께 들어온 복음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WCC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진영에서는 자기 민족과 문화를 우선시 하는 정치, 사회적 복음을 제창한 것이었다. 중국의 3자 교회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상황화의 용어를 진보진영과 구별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바양 카토(Byang Kato)에 의해서 '상황화'라는 용어가 소개되었다. 이는 복음이 비기독교적 토양에 제시될 때 왜곡되거나 희석됨이 없이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교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상황화에 대한 해석은 오늘날도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3. 상황화에 대한 수용태도

첫째는 상황화를 거부하는 태도이다. 19세기 전후 선교사들은 옛 관습들을 이교적인 것으로 여겨 거부해 버린 적이 많았다. 이러한 발상은 선교사들의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기인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자신의 문화와 동일시 함으로서 다른 문화를 나쁜 것으로 판단하곤 했다.

둘째는 상황화를 수용하는 태도이다. 이 경우는 옛 관습 및 문화들을 기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러한 관습 및 문화를 그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무비판적 수용은 기독교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셋째는 상황화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옛 방식에 대한 무비판적 거부와 수용이 둘 다 선교사역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제 비판적 상황화로 선별한다. 옛 전통과 관습들이 비성경적이 아니라면 그 현지문화를 존중하고 토착화하는 흐름이다.

4. 성경과 상황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의 행하심이다. 그 말씀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 관점에서 조명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말씀이 인간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씀은 어떠한 인간 문화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초문화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절대적인 계시와 상대적인 문화를 구별해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과 문화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규범적 성격은 초문화적 원리들로서 절대적이다. 반면에 문화는 상대주의적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달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전달자의 문화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토착 신앙 공동체의 자결권을 인정하는 문화적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5. 한국교회와 상황화

언더우드를 비롯 초창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기독교를 한국에 소개하는 목적이 한국을 서구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한국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도박과 술, 조상제례와 무속신앙적인 요소는 배격하였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건물양식과 전통문화를 존중했다.

오늘 한국선교사역의 실태는 어떠한가? 과연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가? 교회건물, 교회이름, 예배형태, 기도양식 등 한국교회 문화를 주입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불교권에서 주여 3창으로 통성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곳은 조용한 수행의 문화이다. 열대나 아열대 기후권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식 새벽기도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들은 더운 날씨 때문 낮에 오침을 하고 밤에 활동을 한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환경이다. 그곳에서 한국식으로 살면 오래 버틸 수 없다.

입향순속(入鄕循俗) 고사성어가 있다. 로마에 가서는 그곳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라는 의미이다.

맺음 말

상황화란 단순히 한 시대의 선교전략이거나 선택상황이 아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전도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행위이다.

선교란 이방인들을 기독교화 하되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상황화는 선교를 위해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이를 경시하고 단일문화적 접근방식은 현지에서의 복음전파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한인 세계선교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현지인의 특성과 문화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해보아야 한다. 어차피 선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을 위한 사역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song007@hanmail.net

"진화론과의 타협은 성경권위 추락시킨다"

한국창조과학회 '창조신앙과 진화론의 공존이 가능한가' 세미나

창조신앙과 진화론은 타협이 가능할까. 성경을 진화론에 끼워 맞추는 것은 타협이며,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는 '창조신앙과 진화론의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남서울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창조신학과 반(反)창조세계관'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강의에서 박태영(대전 온누리교회) 목사는 "철학과 과학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누가 시작했느냐'의 문제"라며 "진화론은 무기물이 유기물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했다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라며 "한국교회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잘 가르쳐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창조과학회 한 회장은 "성경은 무오하며 각각의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졌다"며 성경의 권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다윈의 진화론 영향으로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 내용을 진화론에 맞춰 해석하면서 성경을 오류투성이로 간주하는 흐름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조신앙과 진화론을 결합시킨 '타협이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타협이론은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믿음과 함께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지적인 교만의 산물"이라며 "최근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피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창조과학회가 타협이론이라고 가정한 대표적 이론은 '다중격변론'과 '진화적창조론'이다.

다중격변론을 주장한 양승훈(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의 논리는 이렇다. '하나님이 진화의 순서대로 생물을 창조하고 멸종시키는 일을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거나 노아홍수가 일어나는 등의 다중격변을 통해 지구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아담 이전에도 공룡이 멸종하는 등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회장은 "성경 어디에도 아담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며 "성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한다"고 양 교수 주장을 논박했다. 양 교수는 창조과학회의 이같은 입장에 비판적이다. 그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 미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창조과학을 수용한 성인은 38%에 불과했다. 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창조과학을 믿는 경향을 보였다"며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창조과학은 점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화적창조론은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이론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통해 생물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저서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IVP)에서 "신이 진화의 방식을 사용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한 회장은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사실상 원숭이와 공통 조상에서부터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생물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한 회장의 비판을 재반박했다. 그는 "한윤봉 회장이 제 저서에서 일부를 편집해 비판하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저 역시 복음의 핵심과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이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과학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다윈주의 진화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신다윈주의 진화론은 유전자가 외부 환경에 대응해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에 의해 진화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의식이 없는 물질이 저절로 진화해 지능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하나님의 창조설계를 통해 인간은 비로소 지능과 마음을 갖게 됐다고 믿는다"고 고백했다.

창조과학회는 1981년 1월 31일 설립됐다. 현재 회원 수는 정회원, 온라인 회원 등 3만3000여명이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Fax.(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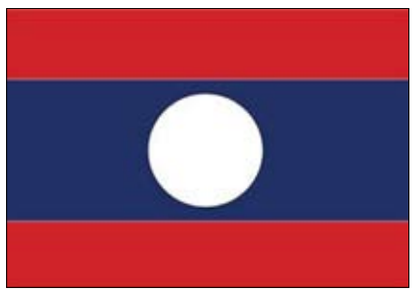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박해와 선교현장(3)

라오스(Laos)



-종교: 불교(67%), 정령신앙(33%)
-인구: 약 7,038,700명, 기독교인: 225,000명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24위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라오스(Laos)의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

최근의 역사적 상황

라오스는 1953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다. 한차례 권력 분쟁 끝에 1975년 공산당 군대가 기존 왕권을 타도했고, 이후 수 년간 고립 상태가 지속됐다.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라오스는 국제 사회와 왕래하기 시작했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라오스는 여전히 빈곤하고 해외 지원에 심각하게 의존되어있다.

2016년 3월 라오스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이 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국가는 여전히 폐쇄적이었다. 동남아 사회와 인권운동가들을 연결시키는 아세안 인권포럼은 주로 아세안 의장국이 주최한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는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자유를 허락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소수 집단인 기독교에게는 더더욱) 2016년 8월 이 포럼은 동티모르에서 개최됐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독교를 포함해 이탈로 의심되는 모든 조짐들을 강력하게 탄압한다.

한편 라오스는 독립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시급한데 이는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방되어서야 가능할 것이다.

종교적 지형도

라오스는 여전히 공산당 치하에 있으며 정부 당국은 종교를 적대시한다. 불교는 국가 유산의 일부로, 토속 신앙은 근절하기 어려운 미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기독교는 서구적 가치관과 적대감과 연계된 이방 종교로 여겨진다.

라오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전통을 따르는 소승불교 국가다. 이토록 오래된 종교 신앙 체계는 어떻게 공산당의 지도 이념과 공생하고 있는 것일까? 라오스 사회는 불교의 영향과 사원 그리고 승려들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불교 사원은 (특히 지방일수록)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되며 대다수 불교 신자는 적어도 며칠, 또는 더 길게, 삶의 일정 시간을 사원에서 보낸다. 일부 불교 승려의 목표는 국가통제라는 공산당의 정치적 목적과 부합한다. 공산당의 목적은 국가 안정을 유지하고 정부 세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대부분 승려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존경 받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종교 영역과 정치적 영향력을 독차지하는 것이다.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점에 있어서 정부와 승려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풍토

공산당은 민주개혁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베트남의 영향을 받아 사회를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이 두 나라에서 찾고 있다. '법의 지배' 또는 '인권'과 같은 용어는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히 지방의 지도자들은 중앙 정부가 정한 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 더딘 편이다. 공산당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정권 패턴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에 관해서는 족벌주의와 부패를,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강압적 통치를 설명해 주고 있다.

불교 당국과 민족 종교 지도자들은 공산당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그들과 종종 사이가 좋은 편이다. 인구의 거의 반이 소수 민족으로 그들을 잘 통제하는 것은 정부당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불교가 나라 전체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보다 더 깊은 이유로는 라오스가 이웃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민족, 종교 또는 사회불안으로 인한 동요를 덜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국의 매우 엄격한 지배로 인해 다른 견해를 표현하거나 시위를 열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불교는 전체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정령의식 또한 사회안, 특히 시골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이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령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방인으로 간주됨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지형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이 나라의 경제는 당원 가족 또는 그들의 친한 지인에게까지 청탁을 하는 사회 문화여서 지역의 출신 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청탁 없이 좋은 직장 또는 관리직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라오스에서 부패는 아주 흔한 일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게다가 언론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의 압력 또한 없다.

2016년에 발생한 공산당 내의 정권 교체와 그 해 3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이런 점에 있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공산당이 경제통제를 분권화하고 사기업을 권장했던 1986년의 경제 자유화 이후, 나라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루어졌음에도 라오스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나라 중 하나다.

도시와 시골의 개발 차이는 상당히 큰데, 특히 전기와 수도, 위생 시설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면에서 시골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불안에 대한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만연한 부패와 정실 인사(예를 들어 특히 오래된 친구)로 인해, 오직 상위 지도자들만 경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증가하는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불교문화는 전통적으로 부와 권력이 일부 권력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그들의 업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바로 이 업보가 그들의 출생과 사회적 신분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어려운 시기에 보호와 지원을 대신하려면 현재 주어진 상황 개선을 위해 의무와 충성에 기반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나라의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에서 생각해 볼 때, 개방된 시위는 물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개선 가능성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이다. 결국 모든 일이 자신의 업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

결론적 요약

라오스는 자국보다 강대국인 이웃나라 베트남과 중국에 의존적이다.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해안 접근이 필요하고 중국에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주로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면에서 정부당국이 주요 결정에 대해 오직 부분적으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예를 들어 시민의 권리와 종교 자유에 대해 라오스는 당분간 소수 종교에게 시민의 권리와 종교 자유를 허락할 가능성이 낮다.

아세안(ASEAN) 의장국이 되고 나서 라오스는 국제적 관찰자들로부터 다시 주목을 받지 않고 있으며 핍박 받는 신자들의 역경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과될 것으로 보인다.

비전케어 서부지부 주최 LA아이캠프 성황

년 2회...2012년 이후 백내장수술 80명

비전케어 서부지부 주최 LA아이캠프에서 비전케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비전케어 서부지부(이사장 이창엽) 주최 제 9회 LA아이캠프가 23일(토) 오전 9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오픈뱅크(행장 민킴) 웨스턴 지점에서 성황에서 열렸다.

시력이 잘 보이지 않아 평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간단한 눈 검사도 받지 못한 불우 이웃들을 위한 이번 안검사는 모든 한인들에게 무료로 진행된다. 검진을 통해 백내장이 확인된 환우에게는 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통해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창엽 이사장은 "7년째 접어들면서 해외에서도 많이 했지만 LA에서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에 두 번씩 해왔다. 50명 넘는 분들에게 백내장 수술 제공해드렸다"며 "LA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됐다. 지속적으로 동포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비전케어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소외된 한인들도 있음을 알게 됐다. 시력을 되찾고 안보이는 세상이 보이게 됐다는 분들을 볼 때 이사역이 보람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선 간사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한 가운데 그동안 80여명 가까운 분들이 비전케어 선교단체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또한 양쪽 눈을 모두 수술 받아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다섯 분 정도가 된다. 이번 행사는 사전 예약할 필요가 없으며 당일 행사장에 나오면 누구나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케어는 지난 2012년부터 타운 내에서 무료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 무료 안과 외래진료 600여명을 비롯해 80여명의 시각장애 환우들에게 무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한바 있다.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2)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3)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하나님의 눈으로 해당 과목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해석하여 그 각각이 가진 고유한 역할까지 고려하면서 모든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

지난 이야기들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해 "성경적 통합 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오늘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는 여느 기독교교육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언하건대,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엡4:1). 특히나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업의 과정에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각각의 과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운영하시는 큰 그림의 틀 안에서 이해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의 적용을 위한 비평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을 성경적 진리로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 통합교육의 기저를 흐르고 있는 대지, 즉 그 근간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통합교육의 근간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 is God's truth)"라는 유명한 구절로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및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에서 유래된 구절로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발견된 모든 진리는 그것이 어떤 영역의 진리이든, 즉 과학이든, 의학이든, 법학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어학이든, 수학이든, 물리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 어떤 사회과학이든, 그 무엇이건 간에 그 모든 영역에서의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맥락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찾아내 온 인간들의 역량자체가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능력(ability of logical reasoning)을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적 통합교육의 근간적 의미는 모든 영역,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표현하면, 모든 과목과 그 과목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분명히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들은 유한하며 또한 오류를 범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즉 인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때, 때로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을 거쳐 점진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과정의 어느 지점들에서 얻게 되는 지식 등은 완성되지 않은 것들일 수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인간들은 쉽게 오류를 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완전히 틀린 것을 진리라고 여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인간들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즉 인간들의 본유적 죄성 때문에, 진리인 것으로 발견된 것들 중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방향으로 왜곡 되어진 것일 경우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진리의 경우, 바로 그 과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는 과학이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적인 한계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적 한계에 관한 것인데, 즉 과학은 오직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만 진리를 추구하고 또한 이 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을 다룬다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표현이 시사하는 진정한 의미는 특히 이것이 성경적 통합 교육의 근간으로서 회자될 때는, 위와 같은 주의점들을 환기하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한, 그 모든 진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인식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 통합교육의 근간적 의미는 개혁주의 신학 및 신앙의 바탕이 되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신학들 중에서 "영역주권사상(sphere sovereignty;souvereiniteit in eigen kring)"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역주권 사상은 카이퍼가 했던 1880년 화란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Free University) 개교 기념 연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연설의 주된 내용은 그가 했던 단언,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만유의 주재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 하지 않을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역주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모든 창조의 영역들은 각각이 독립적이고 분별되는 영역들이며 상호 침해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카이퍼의 자유대학 개교 연설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각각의 주권을 가진 그 모든 인간 삶의 영역들의 주인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 즉 교육자체를 포함해서, 교육이 다루고 있는 각각의 과목들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퀴나스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사상과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에서 잘 설명 되어지는 그것, 즉 모든 과목과 그 가르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통합교육의 근간이 되는, 그 개념을 관통하는 큰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들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므로 그 과목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며 또한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색을 맞추듯이 성경구절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해당 과목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토대 위에서 해석하여 그 각각이 가진 고유한 역할까지 고려하면서 모든 과목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통합교육이 갖는 의미에 따른 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성경적 통합교육 목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도록 교육하는 것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영역주권사상"(카이퍼)과 밀접 연관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하나님의 교회(고전1:1-3)찬259장

주님이 그렇게 세우고자 하신 교회는 사도들에게 와서 그 실체가 더 밝히 드러났습니다. 고린도교회를 향한 사도의 가르침에 나타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계속 그의 교회로 나갑니다. 그러자면 먼저 그 교훈을 잘 알아야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넣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탄과 결별하고 하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그 안에 살아야만 하는 무리들이 교회입니다(요15:5). 셋째,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2). 날마다 주를 부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외형주의로 치우친 이 시대 교회에 사도가 보인 하나님 교회의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화 바울의 감사(고전1:4-7)찬461장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의 지혜는 감사의 조건을 열거함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생겨지고 계속되는 복음에서 나온 은혜입니다. 둘째, 그들이 받은 풍성한 은사로 인해 감사했습니다(5).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방면에 진리 지식과 그 적용의 풍성한 것을 본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의 활동으로 영적 지각이 뛰어나 그 시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델을 보인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 것으로 감사했습니다(6-7). 시작된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 속에 수많은 복음의 증거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거품으로 나타낼 때 감격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가 충만하게 합시다.

수 바울의 확신(고전1:8-9)찬455장

이런 감사는 고린도교회의 장래의 모습에 관한 확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8). 종말론적 시대에 사는 영적 긴장 속에서 벌써 주님 앞에 평가받을 일을 사역의 목적으로 정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둘째, 그는 지금 성령이 계속 일하여 그들을 견고케 하심을 확신했습니다(8). 문제가 일어나 고통이 따르나 그 속에서 계속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구원과정에 그는 신실하십니다. 처음부터 일어난 일들 곧, 부르심, 양자되게 하심, 의롭게 하심 그리고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미쁘십니다(9).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목 교회분쟁의 해결책(고전1:10-17)찬449장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에도 분쟁이 일어남은 웬일입니까? 첫째, 우리 속 육의 부패성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10-11). 육, 육신, 혹은 옛사람으로 일컬리는 욕심은 모든 분쟁의 불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생활에 자아부인을 잘 배워야합니다. 자아부인이란 겸손한 자로 사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순간마다 하는 상태입니다. 둘째, 모든 인본주의의 형태는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12).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고 내용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치우친 마음은 성령의 하나이 됨을 거역하게 합니다. 이 일로 교회는 약해지고 육체의 열매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주의 명령을 존귀히 여겨야합니다(눅7:29). 셋째, 그 분쟁의 해결책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길 뿐입니다(13-16).

금 복음 증거 방법의 중요성(고전1:17)찬453장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 증거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경중을 따라 행해야합니다. 첫째, 세례 베품이 복음을 믿는 일을 앞설 수 없습니다. 세례는 이미 믿은 사람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례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진실로 믿은 자만이 세례가 허락됨은 그만큼 그리스도와 연합을 힘써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함을 보인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도란 그의 죽음이 골자입니다. 그가 대신 죽은 그 사실이 복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은 놀라웁게 역사하심으로 이루십니다. 셋째, 말의 지혜를 의존하지 말아 야합니다. 모든 인본주의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의 목적에 이르려는 세속적 원리를 경계해야합니다.

토 십자가의 도(고전1:18-19)찬182장

사도 메시지의 중심이며 교회의 중심인 십자가의 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구원을 얻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십자가 효능의 양면성.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어떤 효능이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먼저 그것은 불택자의 눈에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이기고 절망이 절대 절망으로 회복된다고 하니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무능한 것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은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중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갑시다.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3142-6080, Fax.(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82)2-926-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악현시로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A REFORMING Catholic Confession

종교개혁 500주년...미국교회 "순전한 신앙고백문" 천명(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미국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순전한 신앙고백문"을 천명했다.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신교 신학자들과 신학교 총장들 그리고 교단 리더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동 고백문에 찬성하는 2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앙고백문"이 발표됐다(-A Reforming Catholic Confession-A "Mere Protestant" Statement of Faith to mark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국가 별로 25개 나라, 신학 기관으로 110개 이상이 동참한 이번 고백문의 의미는 바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것이다. 즉 종교개혁 500년이 남긴 유산을 바로 "다양성"으로 보고, 현재 33,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신교회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종교 개혁 정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치성의 회복과 갱신(calling for a recovery and renewal of catholicity)"이 담긴 동 신앙고백문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이트(http://reformingcatholicconfession.com/)에 가면 영어, 스페니시, 불어, 포르투칼어 그리고 한국어로 12개 주제들에 달하는 신앙고백문을 볼 수 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 고백문 한국어 전문을 게재한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

성령은 삼위일체의 셋째 위격이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적이고 인격적인 현존으로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들을 중생시키며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빛과 생명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딛3:5).

성령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주시는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며, 그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그들이 지식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신자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신다(엡4:13).

성령은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와 신앙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시고 그들의 증언을 지도하시고 그들이 수행하는 제자의 직무에 권능을 부여하신다.

교회

단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단체요, 새 창조의 첫 열매요, 그리스도를 주님과 머리로 하는 고귀의 구속 받은 사람들의 무리 전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교회의 견고한 기초다(마16:16-18, 고전3:11).

지역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자 비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시는 이 땅의 장소로서,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사랑의 언행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눅22:19)에 순종함으로써 가시적으로 존재한다.

세례와 성찬

우리 중에 "성례"라고 부르는 사람도 더러 있는 세례와 성찬 이 두 의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히 결부되는데, 복음의 약속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만나는 장소가 된다.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신다"는 신자들의 확신을 굳게 하고 신자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

세례와 성찬은 종교 개혁의 핵심적 통찰, 곧 하나님의 선물(오직 은혜) 및 두 의식으로 보증된 약속을 붙드는 믿음(오직 믿음)을 위한 실제적 초점이다.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과정("한 떡…한 몸", 고전10:16-17)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화목을 참되게 나타내는 만큼 복음의 유형적 표현이다.

세례와 성찬은 죄 용서에 대한 은혜로운 약속 및 화평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상기시키고 선포하고 입증함으로써 신자들을 세운다(고전11:26, 골1:20).

거룩한 삶

기도, 말씀의 사역, 다른 형태의 공동 예배뿐 아니라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내주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거룩한 나라(벧전2:9, 10)로서 자신의 새로운 실재로 자라간다.

우리는 참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개인과 단체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탁월한 공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서 자기 몸을 영적 제물로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의 행위와 긍휼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의를 통해 세상에 대하여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지혜롭게 증언한다.

종말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재림하셔서 사망과 사탄에 대한 자신의 승리를 통하여 온 우주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다(고전15:26). 그리스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신앙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분리된 영원한 운명에 처하실 텐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한 신부로 예비하셔서(계19:7-9), 평안 없는 마음에 쉼을 주시고 영화로워진 몸에 생명을 주실 것이며(고전15:32, 빌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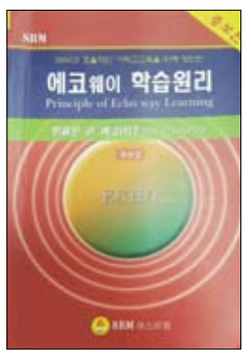
그들은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로 크게 기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유할 것이다(계21:1-2).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딤후2:12, 계22:5) 그리스도를 얼굴로 대면하여 볼 것이며(고전13:12, 계22:4) 경탄과 사랑과 찬양 속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새책소개

"에코웨이 학습원리"

저자 황의영 목사



SBM총재 황의영 목사가 그동안 진행해온 '에코웨이'를 정리해 증보판 "에코웨이 학습원리"(Principle of Echo way Learning)를 하나로 묶어 출간했다.

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과 효율적인 기독교교육을 위해 창안한 본서는 "믿음은 곧 에코이다 Octa-course" 라는 부제를 달았다.

기독교인의 전인교육을 위해 "말씀의 신앙화, 신앙이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3대 목표를 걸고 운동을 펼치고 있는 SBM 총재 황의영 목사는 "특히 말씀의 신앙화와 신앙의 생활화가 시급한 당면과제"라며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강단 선포만이 아니고 강단에서 내려와 먹이를 먹이는 "양육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목사는 또 교회 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학습원리로 에코웨이 학습원리를 강조한다.

책은 2007년 초판의 증보판으로 1. 에코의 의미와 효능성, 2. 에코의 성경적 기초와 절대성, 3. 에코의 일반적인 현상과 보편성, 4. 하나님과의 관계증진과 에코의 필연성, 5. 너무나 당연한 에코의 불가피성, 6. 신앙생활의 기본과 에코의 합리성, 7. 에코를 위한 대응 방안과 역동성, 8. 에코를 잘하기 위한 준비와 능동성, 9. 에코의 활성화를 위한 행동지침과 창의성, 10. 에코코스의 두 영역과 개혁성, 11. 에코코스의 핵심과제와 그 효율성, 12. 에코코스의 도표와 그에 따른 해설, 13. 에코웨이 학습원리의 도입과 진취성, 14. 에코웨이 학습원리에 따른 SBM의 현실성, 16. SBM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 등 총 16개 항목으로 나눴으며 마지막에는 SBM 생활고백, SBM 참여하는 길, SBM 노래도 실었다.

교회교육의 체질개선을 위한 창의적 학습원리 소개

총 357페이지.

▲이메일: sbm01@hotmail.com

〈유원정 기자〉

평양말 신약성경 나왔다

성경→하나님말씀책, 은혜→은정, 예배→례배…

평양성경연구소(PBI·대표 김현식 교수)가 편찬한 영어 평양말 대역 신약성경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홍성사·표지)이 출간됐다. 성경 중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평양말로 번역한 '하나님의 약속 요한'이 나온 지 3년 만이다.

성경을 보면 한국과 북한의 문화 및 언어 차이가 실감 난다.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쓴 단어들이 인상적이다. 하나님말씀책(성경), 은정의 휴식일(안식일), 건너뜀명절(유월절), 잘라냄례식(할례) 등이 대표적이다.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 표기법에 따라 례배(예배), 률법(율법), 령혼(영혼), 래일(내일), 녀자(여자), 리해(이해) 등으로 표기했다.

북한 체제 특성상 다른 어휘를 쓴 경우도 있다. '은혜' 대신 사용한 '은정'이 대표적이다. 북한에서 수령이 베푸는 사랑을 뜻할 때 쓰이는 단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 사람에게 '은혜'라는 말로는 원래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 역시 북한에서는 십자(+) 모양의 선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사형틀'로 바꿨다.

미국 틴데일사로부터 NLT(New Living Translation) 성경 번역저작권을 받아 평양말로 번역했다.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설적인 평양말의 특성 때문에 한국어 성경보다 더 선명하게 의미가 와닿는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여라,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구절이다.

제 37회 HYM 청년연합집회

MY CHOSEN INSTRUMENT

"나의 택한 그릇"

"Go! This man is my chosen instrument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their kings an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CTS 9:15-20

2017. 10. 7-8

SATURDAY-SUNDAY 7PM

세리토스 선교교회 (Cerritos Mission Church)

12413 195th St, Cerritos, CA 90703

강사 | 임재웅 목사

신촌교회 담임

Since 1999 HYM HYM청년연합회

More Info : Douglas Kim 선교사

714-393-5135 | www.facebook.com/1999HYM www.hym.cc